

사정으로 사는 사람들	지역사랑	이웃사랑	가정사랑
대구 S252 MBC의 '이웃사랑' 특집인 '대한 불쌍한 사람들'에 지역 불쌍이들에게 바쳐진 제1회 열혈호출을 후원하며 50만 원의 모금 수입을 얻게 됐다.	대구 S252 MBC의 '이웃사랑' 특집인 '대한 불쌍한 사람들'에 지역 불쌍이들에게 바쳐진 제1회 열혈호출을 후원하며 50만 원의 모금 수입을 얻게 됐다.	가정인생을 위한 '이웃사랑' 열혈호출을 후원하는 공동 후원회로 열혈호출을 후원하며 50만 원의 모금 수입을 얻게 됐다.	이웃을 위한 '이웃사랑' 열혈호출을 후원하는 공동 후원회로 열혈호출을 후원하며 50만 원의 모금 수입을 얻게 됐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

회 사일 잘 한다고 소문 나 있으면서도
낮엔 일, 밤엔 공부로
건축·시공 기술사라는 어려운 시험에
거뜰히 합격한 김상수 과장

직원들이 출근하고 나면 업무에 방해될까봐
마음에 소옥 들만큼 청소하지 못한다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5시면
어김없이 회사 정문을 들어서
환경미화담당 허영숙 씨

참조심 포스터 공모전, 최고상(91년)
교통안전 포스터 공모전, 최고상(93년)
경북 우수농산물 심미마크 공모전, 최고상(95년)
이렇듯 '넌다' 하면 '최우수상' 따내는
재주꾼 진상배 사원

차 밀리는 박종 안락어도 되고
에너지 아끼고 몸에도 좋다면
남마다 자전거타고 출퇴근하는
대중 여직원 김부흥 주임

부모없는 아이들을 남몰래 도와오면서도
'저축의 날'엔 큰 상 받는 정석해 과장

폭우 쏟아지는 밤.
 우리 아파트 건설현장에 별 탈 없는가 싶어
 밧소라에 뺨 감 털고나와
 전동돌고 살피다가
 어둠 속에서 만나 꺼안고 서로 고마워 한
 전래동화 속의 주인공 같은
 김소경과 이사장

5월 어린이날에 책 선물 한 권 받기 어려운 소년 소녀가장들을 위해 '연분 동시집 6천권을 만들어 주자'는 기자회견을 보고
"10만권을 만들어 팔고무 나눠 주라"고 자서애 단장자를 당황하게 하는가 하면, 방학에는 회사 임직원 자제들에게 '전강하게 할찬 방학 보내라'는 내용의 지상한 편지도 띄우고
산수 빼어난 전통마을에 '효도랜드'를 열며 모아 놓고 사립대학 사는 길 을 일러주는 수수같은 정경이 이슬로 최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 서로 사랑하며
열심히 일하는 곳이 우방입니다.

[illegible]

여성



특·집
장례문화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96-8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KOREAN NATIONAL COUNCIL OF WOMEN

시외전화

이제 지역번호 앞에 082를 누르세요

9%까지 저렴합니다!



“

이용방법도 쉬워요
지역번호 앞에 082 먼저...
082 + 지역번호 + 상대방전화번호
맞지 않아요!

”

9%까지 저렴한 시외전화 082-알고 쓰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Q 전국 어디서나 "데이콤 시외전화 082"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A 물론입니다. 서울부터 제주도에까지 전화가 있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데이콤 시외전화 082"를 이용하면 기존 요금보다 얼마나 저렴합니까?

A 거리에 따라 요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전화 거는 곳을 중심으로 수도권으로 구간은 기존요금과 동일하지만, 100km까지는 7%, 101km부터는 9%까지 저렴합니다. 또한 할인인센티브는 30%, 장거리인 구간에는 50%가 추가로 할인됩니다.

Q 사설교환기(PABX)에서 이용할 때는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A 맞습니다. 사설교환기(PABX)의 호처리 S/W에 "082" 번호인식 기능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이용하시는 전국 어디서나 "082-100"으로 전화하십시오.

Q "데이콤 시외전화 082"를 더욱 간편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A 전화기의 메모리 기능을 이용하십시오. 자주 거는 시외전화 번호를 기억시켜 놓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데이콤 시외전화 요금을 자동이체하려고 할 때는?

A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직접 신청하십시오. 불편하신 분께서는 전국 어디서나 "082-100"으로 전화 신청하셔도 됩니다.

9%까지 저렴한 -

시외전화

082

데이콤

데이콤 고객센터 : 082-100
(데이콤 요금부담전화)

월간 여성

월간여성 8월 통권343호

목적: 본회는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단체의 발전과 복지 사회를 이룩하는 일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 여성단체의 의견을 정부 및 사회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4 여성

"아직도 피해자 타인가?" / 장영복

특집/장래문화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6 특집/장래문화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장래문화, 전통적인 관습이 지배적!

25 여성관련통계

강간범죄의 발생건수 및 범죄자수

26 회원단체를 찾아서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

28 해외여성통신

여성들, 남성들보다 임금 25% 적어

32 근로여성고발창구 운영보고서

모집·채용상 차별, 승진·배치상 차별 늘어

36 매스컴에 비친 여성/1

여름과 함께 시작한 세 드라마 / 주혜숙

40 매스컴에 비친 여성/2

진행자의 이름을 내건 토크쇼 / 옥선희

45 여성문화

김자무쉬 감독의 영화 '천국보다 낯선' / 이세기

46 여성학 지상강좌

보육정책의 현황과 과제 / 남미영

54 환경정보

물 절약형 수도꼭지

55 여성계 동향 / 이구경

58 협의회 소식

59 우리들의 광장

“아직도 피해자 탓인가?”

장영복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국제경찰기구 통계 발표에 의하면 한국은 성범죄 발생률 세계 3위, 연간 25만 여건의 성폭력 사건 발생, 피해자의 약 30%가 13세 미만의 유아와 어린이, 심지어 가장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할 가족이나 친족내 성폭력이 16.7%, 신고율 단 2%……

최근 성폭력을 당한 여중생이 학교에서 출산한 사건과 11세 어린이가 동네 사람들에게 의한 성폭행의 피로움을 당해오다 자살기도한 사건, 또한 여중 자취생이 집주인 부자에게 성폭행 당하고 임신 낙태수술까지한 일련의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되어 정말 이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하는 물음과 함께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충격은 우리 사회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듯 슬렁이다가 영동하게도 청소년의 성문란에서부터 피해 여아의 행실과 품행으로, 이런저런 모양의 피해자 비난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성폭력 피해보다 더 무서운 주위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

성폭력은 결코 성관계가 아니다. 분명 사회폭력의 한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성폭력은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부끄러워하며 비난받아 온 현실이다. 우리 사회는 성폭력을 성적인 형태를 빌어서 일어난 “성적 자유권에 대한 침해이며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한 범죄행위이며 약한 자에 대한 폭력”이라기 보다는 억지로 또는 조금 난폭하게 행해지는 성관계인 것으로 규정하여, 여성의 정절을 생명처럼 지키게 한 순결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가치를 오로지 몸(처녀막)에다 두어 여성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일어난 성폭력에 대해서까지도 그 피해 여성에게 책임을 물어왔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가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자를 합리화시키는 잘못된 통념이 그동안 아무 저항없이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이다.

성폭력은 부주의한 여자가 쓸데없이 돌아다니다가, 야한 여자가 남자의 성충동을 유발하여, 혹은 당할 만한 행동을 한 여자가 당한다는 식의 피해자 유발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추궁하는 듯한 의심의 눈초리, 순결을 잃고 몸이 더럽혀진 아이로 보는 주위의 시선들이 어린 피해자를 자살로 내몰게하고 어느날 갑자기 학교를 떠나야만 하게 하고 피해를 10개월이나 숨기면서 임신 사실을 혼자서 감당할 수 밖에 없게한, 11살의 어린 피해자가 자신의 고통을 주위의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정말 억압적이고도 잔인하기까지한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와 잘못된 통념에 우리는 분노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는...

이제 더이상 신고되지 않은 94%의 가해자가 (자랑하며) 활개치고 다니는 세상이 아닌, 이제 더이상 피해자가 죄인 취급받는 세상이 아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위하여, 성폭력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 초점이 맞춰지는 사건으로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시선을 올바르게 돌려 놓아야 한다. 그래서 피해자 유발론에서 비롯한 피해자 비난이 아니라, 먼저 따뜻한 시선으로 감싸안아 주어야 한다. 바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폭력과 유괴를 당해서는 안되는 권리가 있듯이 성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성폭력 피해자가(설령) 무슨 행위를 했더라도 성폭력을 한 사람은 피해자 아닌 바로 가해자 잘못임을 “우리는 머리에서 인정하고 가슴에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특집

장례문화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장례문화, 전통적인 관습이 지배적!

〈본회 소비자보호연구위원회 제공〉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부의금이나 묘지문제, 묘지면적 등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전통이라는 관습에 얽매어 아직까지 장례 문화의 개선에 대해 획기적인 변화를 실천하고 있지는 못하다.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전통을 고수해야 한다는 고루한 생각 때문에 잘못된 관행을 지켜 나가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전통도 필요하지만 개선하고 발전시킬 때 전통으로서의 권위는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I. 서론

1. 조사의 목적

최근 연세대 병원 영안실에서는 기존의 영안실과는 다른 획기적인 영안실 운영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부천시에서는 부시장이 직접 화장장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유언하였으며, 서울시는 시립 묘지의 사용료 200% 인상과 지도급 인사의 화장 의무화(매일경제신문, '96. 6. 7), 봉분이 없는 평토장 추진(조선일보, '96. 6. 10) 등 장례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하였다. 장례와 관련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전통 사회의 의례에 관한 인류학에서의 연구, 전통 장례 의식과 개신교의 장례 의식에 대한 비교 연구, 장의 제도 혹은 병원 영안실의 실태 조사 및 묘지 제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경조비 실태에 대한 연구 등 지엽적인 연구에만 국한되어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의금, 장례 실태, 풍수지리설, 묘지 문제, 시한부 묘지 제도, 화장 및 납골당 등 장례 전반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실천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부의금 문제에서 가족은 105,732원, 이웃은 29,722원, 직장 동료는 34,656원, 친구는 41,455원을 지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저축추진 중앙위원회, 1994). 그렇지만 이 연구의 경우 부의금에 대한 부담감이나 의견 등이 나타나지 않아 아쉬운 감이 있다.

그리고 장례 실태와 관련해서는 실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부의금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장례에서 상주측과 문상객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하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에서는 장례에서 상주측과 함께 문상객의 실제 행동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 보고자 한다.

그리고 묘지의 경우 우리나라는 매년 20여만기의 분묘가 발생하여, '94년말 현재 한국의 묘지 면적이 974km로 전 국토의 0.98%를 차지하고 있다(보건

복지부, 1995). 또한 서울은 앞으로 2년, 수도권은 5년, 전국적으로는 10년내외에 집단 묘지의 공급이 한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묘지 면적의 축소, 시한부 매장제 도입, 분묘 일제 신고 등 묘지 제도 지도 권장기준(보건사회부 훈령 제623호, 1992. 7. 5)을 마련하여 홍보 및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799호, 1961. 12.)"은 3차에 걸쳐 개정된 후 새로운 법률 개정안은 1995년 이후로 개정 시기가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적인 면에서의 개선도 부분적으로 대응하였을 뿐 종합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장률의 경우 1980년에 13.9%, 1990년에 17.5%, 1992년에 18.4%, 1993년에 19.1%, 1994년에 20.5%로 매년 약 0.5%씩 소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일본의 97%, 태국의 90%, 홍콩의 72%, 스위스의 67%, 영국의 6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보건복지부, 1995). 그리고 화화장(火葬場)도 전국에 46개소가 공설로 운영되고 있지만, '94년 현재 화장 실적은 33%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묘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장을 권장하고 납골당

(묘)을 확대하려 한다면 화장에 대한 의식, 화장기피 이유 그리고 화장기피를 극복하는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화장에 대한 의식, 화장기피 이유 그리고 화장을 기피하는 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또한 시한부 묘지 제도, 공원 묘지 제도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

2. 조사방법

본 조사는 서울·경기지역에서 11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서울 지역의 경우 24개 구에서 700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해, 교육을 받은 본회 모니터 요원이 응답자를 직접 만나 개별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실제 분석에 이용된 것은 654부이다. 그리고 경기지역은 문산, 일산, 부천, 성남에서 400명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교육을 받은 동국대 사회학과 학생이 응답자를 직접 만나 개별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실제 분석에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단위: % (명))					
성별	남	58.4	직업별	전문 - 관리 직	17.4
	여	41.6		사무 직	34.0
	합 계	100.0(1029)		판매 - 서비스	20.0
연령별	20대	18.3	소득별	주 부	19.7
	30대	39.1		기 타	8.9
	40대	21.7		합 계	100.0(1010)
	50대 이상	20.9		100만원이하	18.5
	합 계	100.0(1020)		101~150만원	24.1
				151~200만원	29.2
학력별	중 졸 이하	9.3		201~300만원	19.0
	고 졸	36.8		301만원이상	9.2
	대 졸 이상	53.9		합 계	100.0(959)
	합 계	100.0(999)			

이용된 것은 375부로 총 1029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실제조사는 1996년 5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이루어졌다.

분석 방법은 SPSS를 활용, 빈도 분석을 기본으로 하고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교차 분석을 하였다.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표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성별에서는 남자가 58.4%, 여자가 41.6%이다. 그리고 연령별로는 20대가 18.3%, 30대가 39.1%, 40대가 21.7%, 50대 이상이 20.9%이다.

학력별에서는 중졸이하가 9.3%, 고졸이 36.8%, 대졸이상인 53.9%이다. 직업별에서는 전문-관리직이 17.4%, 사무직이 34.0%, 판매-서비스직이 20.0%, 주부가 19.7%, 기타가 8.9%이다. 그리고 소득별에서는 100만원이하가 18.5%, 101~150만원이 24.1%, 151~200만원이 29.2%, 201~300만원이 19.0%, 301만원 이상이 9.2%이다.

II. 상가에 대한 인식

이 장에서는 상가와 관련한 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부의금 및 상가방문에 대해 살펴 보고, 그 다음으로 상가 실태에 대해서 살펴 볼 것이다.

1. 부의금 및 상가 방문

1) 평균 부의금 및 상가 방문 횟수

부의금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전무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조사는 실제 부의금을 내는 액수를 구체적으로 살펴 부의금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표2>는 지난 1년동안 1회당 평균부의금 및 상가 방문 횟수를 가족·친구·직장동료로 나누어 살펴

본 평균값이다.

먼저 1회당 평균 부의금 액수는 68,100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지역적인 구분에서는 서울의 경우 67,000원, 경기도 70,600원이다. 이러한 부의금을 가족·친구·직장동료로 나누어 살펴보면, 1회당 평균 부의금이 가족은 123,800원, 친구는 44,200원, 직장동료는 35,400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94년의 저축추진중앙위원회에서 조사한 액수보다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회당 평균부의금을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의 경우 가족은 121,100원, 친구는 44,900원, 직장동료는 34,800원이다.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 가족은 129,300원, 친구는 42,800원, 직장동료는 36,700원으로 나타났다. 가족과 직장동료는 경기도에서 더 많고 친구의 경우는 서울이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로 1년동안 평균 상가 방문 횟수는 9.98회이다. 이를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서울이 9.25회, 경기도가 11.74회이다. 구체적으로 가족·친구·직장동료로 나누어 살펴보면 가족은 2회, 친구는 3.

<표 2> 1회당 평균 부의금 및 상가방문 횟수

(단위: 원/횟수)

구 분	전 체	서울	경기도
부의금	가 족	123,800	121,100
	친 구	44,200	44,900
	직장동료	35,400	34,800
	전 체	68,100	67,000
상가방문	가 족	2.0	1.90
	친 구	3.45	2.98
	직장동료	4.22	3.78
	전 체	9.98	9.25

1년 부의금(전체) : 68,100(원) × 9.98(회) = 679,638원
 (경기) : 70,600(원) × 11.74(회) = 828,844원
 (서울) : 67,000(원) × 9.25(회) = 619,750원
 경기-서울 = 209,094원

45회, 직장동료는 4.22회이다. 그리고 가족·친구·직장동료에 대한 상가 방문 횟수를 지역으로 나누어 보면, 가족의 경우 서울은 1.90회, 경기도는 2.21회이다. 그리고 친구는 서울이 2.98회, 경기도는 4.40회이며, 직장동료는 서울이 3.78회, 경기도는 5.28회이다. 가족·직장동료·친구 모두에서 경기도의 방문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의금 평균액과 상가 방문 횟수를 종합한 1년동안 평균 부의금 총액은 679,638원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서울과 경기도로 나누어 살펴보면 경기도민은 828,844원, 서울시민은 619,750원을 부의금으로 내고 있다. 서울과 경기의 차이가 209,094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적인 특성상 경기도의 경우 소지역 단위로 형성되어 있어 친구나 이웃에 대한 참여가 많음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평균부의금 및 상가 방문횟수

구체적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1회평균 부의금액과 상가 방문 횟수는 <표3>에 나타난 바와 같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1회 평균 부의금

액수는 다음과 같다. 연령별에서 20대가 61,030원, 30대는 68,400원, 40대는 67,630원, 50대 이상은 71,380원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이 다른 연령에 비해 부의금을 많이 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업별에서는 전문-관리직이 73,050원, 사무직은 61,600원, 판매-서비스직은 67,780원, 주부는 72,190원으로 나타났다.

학력별에서는 중졸이하가 55,600원, 고졸은 70,260원, 대졸이상은 69,540원으로 나타났다.

소득별에서는 100만원 이하가 52,550원, 101~150만원은 73,160원, 151~200만원은 66,200원, 201~300만원은 95,370원, 301만원 이상은 109,270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높을수록 부의금을 내는 액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뚜렷하게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1년 평균 상가 방문 횟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별에서는 20대는 7.91회, 30대는 9.45회, 40대는 11.15회, 50대 이상은 10.20로 나타났다. 부의금 액수에서는 50대 이상이 많지만, 상가 방문 횟수에서는 사회활동이 가장 활발한 40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업별에서는 전문-관리직이 10.7회, 사무직이 10.61회, 판매-서비스직이 11.09회, 주부가 7.46회

<표 3> 평균 부의금액 및 상가 방문 횟수

(단위: 원/횟수)

구 분	1회 평균액	1년 방문횟수	구 분	1회 평균액	1년 방문횟수
연령	20대	61,030	학력	중졸이하	55,600
	30대	68,400		고 졸	70,260
	40대	67,630		대졸이상	69,540
	50대이상	71,380		전 체	68,540
	전 체	68,240	소득	100만원이하	52,550
직업	전문-관리직	73,050		101~150만원	73,160
	사무 직	61,600		151~200만원	66,200
	판매-서비스	67,780		201~300만원	95,370
	주 부	72,190		301만원이상	109,270
	전 체	67,510		전 체	68,220
					9.98

로 나타나고 있다.

학력별에서는 중졸이하가 10.5회, 고졸이 9.99회, 대졸이상이 9.89회로 나타났다.

소득별에서는 100만원이하가 8.21회, 101~150만원이 9.73회, 151~200만원이 9.77회, 201~300만원이 10.54회, 301만원이 13.15회로 나타났다. 평균 부의금액과 함께 상가 방문 또한 소득이 높아질수록 많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의금 총액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1년 부의금 총액은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연령별에서는 20대가 482,747원, 30대가 646,380원, 40대가 754,074원, 50대 이상이 728,076원이다. 사회 활동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는 40대의 부의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업별에서는 전문-관리직이 781,635원, 사무직이 653,576원, 판매-서비스직이 751,680원, 주부가 538,537원이다. 전문-관리직과 판매-서비스직의 부의금 액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에서는 중졸이하가 583,800원, 고졸이 701,897원, 대졸이상이 687,750원을 부의금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별에서는 100만원 이하는 431,435원, 101~150만원은 711,846원, 151~200만원은 646,774원,

<표 4>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의금 총액

		(단위: 원)	
구 분	1년 부의금 총액	구 분	1년 부의금 총액
연령	20대	학력	중졸이하
	30대		고 졸
	40대		대졸이상
	50대이상		100만원이하
직업	전문-관리직	소득	101~150만원
	사무직		151~200만원
	판매-서비스		201~300만원
	주 부		301만원이상

201~300만원은 1,005,199원, 301만원이상은 1,436,900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많을수록 1년동안 부의금을 내는 규모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의금을 결정하는데 있어 경제 규모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부의금에 대한 부담감과 개선

이상과 같은 부의금에 대한 부담 정도는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가족의 경우 '부담없다'가 51.2%, '부담있다'가 48.8%이다. 그리고 친구의 경우는 '부담없다'가 37.6%, '부담있다'는 62.4%이다. 직장동료의 경우는 '부담없다'가 33.0%, '부담있다'는 67.0%이다.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직장동료, 친구, 가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5> 부의금에 대한 부담 정도

(단위: % (명))			
구 분	가 족	친 구	직장동료
부담없다	51.2	37.6	33.0
부담있다	48.8	62.4	67.0
합 계	100.0(957)	100.0(966)	100.0(95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의금에 대한 부담

감은 부의금을 내는 관행에 대한 개선 의지로 나타나고 있다. <표 6>은 부의금을 내는 관행에 대한 태도 조사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는 응답이 60.9%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서 최소화 해야 한다'가 20.2%, '없어져야 한다'가 4.1%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85.2%에 달하는 사람들이 부의금을 내는 관행의 개선을 바라거나 부의금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부의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4.8%에 불과하다.

<표 6> 부의금을 내는 관행

(단위: % (명))	
구 분	비 율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한다	60.9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최소화	20.2
없어져야 한다	4.1
부의금은 당연한 도리이다	14.8
합 계	100.0(1005)

2. 상가실태

1) 상가에서 하는 일

상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상가에서 밥샘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상가에서 했던 일을 모두 응답하게 하는 복수응답으로 살펴보았다. 결과는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7> 상가에서 하는 일

(단위: %)	
구 분	비 율
음식준비	86.7
상주와 함께 손님 맞음	84.4
손님시중 위한 잔 심부름	62.5
술을 마심	58.9
도 박(고스톱)	58.8
주위 사람들과 대화	46.8

*복수응답의 결과

먼저 음식 준비를 했다는 응답이 86.7%, 상주와 함께 손님을 맞이했다는 84.4%, 손님 시중을 위한 잔심부름 62.5%, 술을 마셨다는 58.9%, 도박(고스톱)은 58.8%,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했다는 46.8%로 나타났다.

2) 장례비용 및 부의금 수입

장례비용 및 부의금 수입은 최근 3년내에 상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조사 결과이다.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장례와 관련한 지출은 7,411,520원이며, 부의금 수입은 장례비용을 뺀 나머지는 9,409,730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차이가 1,998,210원에 이르고 있다.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의 경우 장례비용은 7,129,870원, 부의금 수입은 8,826,540원이다. 그리고 경기도는 장례비용이 7,982,240원이며, 부의금 수입은 10,649,030원이다. 경기도가 장례비용과 부의금 수입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8> 장례비용 및 부의금 수입

(단위: 원)			
구 분	전 계	서 울	경 기
장례비용	7,411,520	7,129,870	7,982,240
부의금 수입	9,409,730	8,826,540	10,649,030

3) 상가실태

상가실태 또한 최근 3년동안 가족 중에서 상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결과 분석으로 이루어졌으며, 결과는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다.

돌아가신 분을 모신 장소의 경우 집이 57.0%, 병원이 43.0%로 나타나고 있다. 음식 준비의 경우는 병원에서 준비한 경우가 19.4%, 집에서 준비한 경우가 65.7%, 음식을 주문해서 사용했다가 14.9%로 나타나고 있다.

장례는 3일장이 94.6%로 나타나 대부분 3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장 또는 화장의 경우 매장이 89.4%, 화장이 10.6%로 나타나고 있다. 이

〈표 9〉 상가실태

(단위: % (명))

모신장소	집	57.0	장례준비 어려움	밥 선택	32.8
	병원	43.0		음식준비	21.0
	합 계	100.0(351)		묘지문제	15.3
음식준비	병원준비	19.4	장례준비 어려움	장의사 횡포	12.1
	집 준비	65.7		재정문제	11.8
	주 문	14.9		어려움 없다	7.0
몇일장	합 계	100.0(355)	장례절차 개선점	합 계	100.0(314)
	3일장	94.6		장의사 횡포	32.0
	5일장	5.4		절차 간소화	27.2
매장/화장	합 계	100.0(354)	장례절차 개선점	음식낭비	23.1
	매 장	89.4		영안실 횡포	7.5
	화 장	10.6		도 박	6.1
매장/화장	합 계	100.0(359)	장례절차 개선점	묘지문제	4.1
	합 계	100.0(359)		합 계	100.0(147)
	합 계	100.0(359)		합 계	100.0(147)

러한 결과는 '94년말 현재 20.5%의 화장율(보건복지부, 1995)과 비교해 볼 때 실제 화장율은 정부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화장율 보다 훨씬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장례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밥선택으로 32.8%이며, 다음으로 음식준비가 21.0%, 묘지 문제가 15.3%, 장의사 횡포가 12.1%, 장례 준비를 위한 재정적인 문제가 11.8%, 어려움 없었다는 7.0%로 나타나고 있다.

장례식과 관련한 개선점에서는 장의사의 횡포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32.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장의 서비스업에서 장례 식당이라고 할 수 있는 영안실 횡포가 7.5%로 나타나 장의 서비스업과 관련해서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39.5%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장의 서비스업 자체가 시신의 처리, 장의용품 구입, 장례 식당, 장의자동차 임대 등의 다단계 구조로 되어 있고, 각각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점으로 인해 야기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재의 장례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가 27.2%, 음식 낭비의 개

선이 23.1%, 도박 행위에 개선이 6.1%, 묘지 문제에 대한 개선이 4.1%로 나타나고 있다.

4) 상가 문제에 대한 인식

상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가 문제에 대한 인식은 〈표10〉에 나타난 바와 같다. 여기서도 장의 서비스업 관련한 병원 영안실 횡포와 장의사 횡포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먼저 병원 영안실 횡포의 경우 '문제없다'는 응답은 5.7%에 불과하며, '문제있다'가 94.3%에 달하고 있다. 다음으로 장의사 비용 횡포는 '문제없다'가 5.8%, '문제있다'는 94.2%로 나타나고 있다. 상가에서의 고성 방가는 '문제없다'가 7.7%, '문제있다'가 92.3%이다.

상가집의 재정 부담은 '문제없다'가 17.2%, '문제있다'는 82.8%, 도박은 '문제없다'가 22.2%, '문제있다'는 77.8%, 음식 준비를 위한 여성의 수고에 대해서는 '문제없다'가 26.6%, '문제있다'는 73.4%, 상가에서의 밥선택은 '문제없다'가 27.9%,

〈표 10〉 상가 문제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 분	문제없다	문제있다	합 계
1. 병원영안실 횡포	5.7	94.3	100.0(957)
2. 장의사 횡포	5.8	94.2	100.0(987)
3. 고성방가	7.7	92.3	100.0(982)
4. 상가집 재정부담	17.2	82.8	100.0(987)
5. 도박	22.2	77.8	100.0(1002)
6. 음식준비 여성수고	26.6	73.4	100.0(1000)
7. 밥 선택	27.9	72.1	100.0(1000)
8. 음식접대	41.4	58.6	100.0(992)
9. 부의금	43.9	56.1	100.0(1000)

'문제있다'는 72.1%이다. 그리고 상가에서 음식 접대는 '문제없다'가 41.6%, '문제있다'는 58.6%이다. 그리고 부의금에 대해서는 '문제없다'가 43.9%, '문제있다'는 56.1%로 나타나, 부담감을 느껴 개선을 바라지만 문제가 있다는 비율이 음식 접대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상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병원 영안실의 횡포와 장의사의 횡포를 지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1〉 연세대 영안실의 조치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 분	찬성	반대	합 계
1. 바가지 요금이나 종사자들의 웃돈요구 방지	93.1	6.9	100.0(1009)
2. 도박금지	78.3	21.7	100.0(1007)
3. 영안실내 음식접대 금지 및 식당에서의 음식접대	77.8	22.2	100.0(1002)
4. 음주행위금지	62.3	37.7	100.0(1000)
5. 외부음식물반입금지	48.7	51.3	100.0(997)
6. 자정 이후 문상객 출입통제	42.0	58.0	100.0(1005)

지난 96년 4월 26일 연세대병원 영안실에서는 장례와 관련하여 몇가지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관해서 응답자들의 의견을 물어 보았다. 이에 대한 응답의 결과는 〈표11〉에 나타나 있다. 이를 보면 영안실의 고질적인 병폐인 바가지 요금이나 영안실 종사자들의 웃돈 요구를 방지한다는 조치에 대해 93.1%의 응답자들이 찬성하고 있어 영안실 자체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도박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서는 찬성이 78.3%, 영안실내 음식접대를 금지하고 식당에서 음식접대를 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는 찬성이 77.8%, 음주행위를 금지한 조치에 대해서는 62.3%의 응답자들이 찬성하고 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의 음식물 반입 금지는 찬성이 48.7%, 반대가 51.3%로 반대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정 이후 상주와 친족을 제외한 문상객 출입 통제는 찬성이 42.0%, 반대가 58.0%로 나타나 반대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III. 묘지에 대한 인식

이 장에서는 묘지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묘지 문제에 대한 인식 및 시한부 묘지 제도, 묘지 면적, 호화묘 및 공원 묘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풍수지리설 및 부모님의 묘자리에 대한 만족도 및 성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묘지일반에 대한 인식

1) 묘지문제

묘지 일반에 대한 인식은 묘지문제, 시한부 묘지 제도, 묘지 사용 면적, 호화묘, 공원 묘지 등 4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묘지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묘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심각하다'는 응답이 88.9%, '그저

그렇다' 4.1%, '심각하지 않다' 2.5%, '모르겠다'가 4.5%로 나타나고 있다.

〈표 12〉 묘지 문제

(단위: % (명))

구 분	비 율
심각하다	88.9
그저 그렇다	4.1
심각하지 않다	2.5
모르겠다	4.5
합 계	100.0(1024)

이러한 의식은 우리나라 묘지의 68%가 선상 등 개인 소유로 되어 있으며 묘지 면적 또한 넓게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보건복지부, 1995)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2) 시한부 묘지 제도

기존 연구에서는 시한부 묘지 제도 도입에 대한 찬성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서도 시한부 묘지 제도에 대한 찬성이 62.9%, 반대가 37.1%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조사에서는 시한부 묘지 제도와 관련하여 찬성이 43.3%, 반대가 56.7%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시한부 묘지 제도에 대해 반대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시한부 묘지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결여로 인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표 13〉 시한부 묘지 문제

(단위: % (명))

구 분	비 율
찬성하다	43.3
반대한다	56.7
합 계	100.0(969)

세계 각국의 시한부 묘지 제도에 대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홍콩은 6년 시한이 경과한 후 납골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영국은 5년·10

년·15년·30년과 준영구로 시한부 기간을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는 10년·30년·50년의 시한이 경과한 후 유골을 보관소에 안치하고 있으며, 5~6년 시한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한부 묘지 제도는 묘지의 재활용과 연결된다. 시한으로 정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골을 정리하여 납골당(묘)으로 이장하는 것이다. 본 조사에서 시한부 묘지의 기간에 대한 응답은 〈표 14〉에 나타난 바와 같다. 5년미만이 20.1%, 10년이 37.8%, 15년이 7.7%, 20년이 16.7%, 30년이 14.1%, 준영구가 3.6%로 나타나고 있다.

〈표 14〉 시한부 묘지 제도 기간

(단위: % (명))

구 분	비 율
5년미만	20.1
10년	37.8
15년	7.7
20년	16.7
30년	14.1
준영구	3.6
합 계	100.0(418)

10년이하가 57.9%에 이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기간의 폭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한부 묘지기간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준비하고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리라 보여진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풍수지리설에 의해 터에 대한 차별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므로, 시한부 묘지 제도가 묘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 좋은 곳에 안장하고 계속해서 제례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홍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3) 묘지 면적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묘지 사용 허용 면적은 〈표 15〉에 나타난 바와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 묘지는 9평(30㎡), 개인 묘지는 24평(80㎡)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은 4㎡, 대만은 16㎡,

홍콩은 3㎡, 네덜란드는 3㎡, 영국은 3.6㎡, 프랑스는 2.5㎡, 미국은 2.9㎡를 사용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훨씬 넓은 면적이 법적으로 용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5〉 각국의 묘지 허용 면적

(단위: ㎡)

구 분	분묘1기당 면적
한 국	집단묘지 9평(30㎡) 개인묘지 24평(80㎡)
일 본	4㎡
대 만	16㎡
홍 콩	3㎡
네덜란드	3㎡
프 랑 스	2.5㎡
영 국	3.6㎡
미 국	2.9㎡

(자료: 보건사회연구원, 1995.)

우리나라의 법적 묘지 사용 면적에 대한 의견은 〈표 16〉에 나타난 바와 같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묘1기당 개인 묘지는 24평, 집단 묘지는 9평에 대해 '현행대로 해야 한다'는 16.7%, '줄여야 한다'는 82.7%로 나타나고 있다. 묘지 면적 축소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넓혀야 한다'는 0.6%에 불과하다.

〈표 16〉 법적 묘지 사용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 분	비 율
현행대로	16.7
줄여야 한다	82.7
넓혀야 한다	0.6
합 계	100.0(418)

그리고 〈표 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불법 호화묘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여 처벌해야 한다'가 50.2

%로 나타나고 있으며, '불법호화묘를 조성해서는 안된다'가 44.7%로 나타나 전체의 94.9%가 불법 호화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화묘를 조성하는 것은 자식으로서 당연한 일'이라는 응답은 5.1%에 불과하다.

〈표 17〉 호화묘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 분	비 율
강력 단속 처벌해야 한다	50.2
안된다	44.7
자식으로서 당연한 일	5.1
합 계	100.0(994)

4) 공원 묘지

최근 서울시에서는 시신을 묻은 뒤 봉분을 올리지 않는 평토장을 조성기로 했다(조선일보, 96. 6. 10). 외국에서 보는 것과 같은 공원 묘지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과 유사한 질문으로 "외국과 같이 주거지 인근에 묘지를 공원화하여 조성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찬성'이 12.3%, '찬성하는 편' 26.6%, '그저 그렇다'는 21.5%로 나타났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는 '반대하는 편이다'가 31.7%, '적극반대'는 7.9%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38.9% (매우찬성+찬성하는 편), 반대하는 비율(반대하는 편+적극반대)는 39.6%로 나타나 아직까지 공원

〈표 18〉 공원 묘지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 분	비 율
매우 찬성	12.3
찬성하는 편	26.6
그저 그렇다	21.5
반대하는 편	31.7
적극 반대	7.9
합 계	100.0(994)

묘지를 주거지 인근에 조성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원 묘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식이 정립되어 있지 않음과 동시에 혐오 시설에 대한 거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2. 풍수지리설

삼국시대 묘제의 특징은 지석묘 또는 고인돌이다. 그리고 토장풍습과 공동묘지 제도가 있었으며, 사체를 일정 기간 가매장한 후 유골을 다시 매장하는 이중묘제의 특이한 풍습도 있었다. 통일신라시대에 오면서 묘지 선정에 풍수지리가 도입되었으며, 고려 시대에 와서 화장과 매장이 혼재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법이 유행하였다. 또한 매장의 경우 금한보수제로 인해 분묘의 크기가 제한되었다. 그러나 조선 시대 들어 화장을 금하고 매장제를 강력히 시행하면서 유교적 장제, 풍수지리사상이 성행하게 된다. 이러한 영향으로 族葬制(선산)가 생기고 禁限步數制가 무너지는 등 종래의 화장 풍습은 거의 쇠퇴하게 된다. 이러한 조선 시대의 풍수지리사상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묘지 문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상이 묘를 잘 써야 후손이 잘 된다는 풍수지리설에 대한 의견은 <표 19>에 나타난 바와 같다. "묘를 잘 써야 후손이 잘 된다는 풍수지리설"에 대해 '전적으로 믿는다'가 5.9%, '믿는 편이다'가 65.7%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71.6%의 사람들이 풍수지리설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안믿는다'는 28.4%에 불과하다.

<표 19> 풍수지리설에 대한 의식

(단위: % (명))	
구 분	비 율
전적으로 믿는다	5.9
믿는 편이다	65.7
안 믿는다	28.4
합 계	100.0(1023)

구체적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풍수지리설에 대한 의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풍수지리설에 대한 의식은 <표 19-1>에 나타난 바와 같다. 남성의 경우 5.2%가 '전적으로 믿고 있으며', '믿는 편이다'는 67.2%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경우 6.9%가 '전적으로 믿고 있으며', '믿는 편이다'는 63.6%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남성의 72.4%, 여성의 70.5%가 풍수지리설을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풍수지리설을 좀더 믿고 있지만,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표 19-1> 성별 풍수지리설 의식

(단위: % (명))		
구 분	남 성	여 성
전적으로 믿는다	5.2	6.9
믿는 편이다	67.2	63.6
안 믿는다	27.2	29.5
합 계	100.0(600)	100.0(423)

연령별 풍수지리설에 대한 의식은 <표 19-2>에 나타난 바와 같다. 20대의 4.8%가 풍수지리설을 '전적으로 믿고 있으며', '믿는 편이다'는 70.6%로 나타났다. 그리고 30대의 경우 '전적으로 믿는다'가 5.0%, '믿는 편이다'는 69.5%, 40대는 '전적으로 믿는다'가 5.0%, '믿는 편이다'는 65.3%, 50대 이상은 '전적으로 믿는다'가 9.4%, '믿는 편이다'는 54.7%로 나타나고 있다.

<표 19-2> 연령별 풍수지리설 의식

(단위: % (명))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전적으로 믿는다	4.8	5.0	5.0	9.4
믿는 편이다	70.6	69.5	65.3	54.7
안 믿는다	24.6	25.5	29.7	35.9
합 계	100.0(187)	100.0(397)	100.0(219)	100.0(212)

전체적으로 20대의 75.4%, 30대의 74.5%, 40대의

70.3%, 50대 이상의 64.1%가 풍수지리설을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연령이 낮을수록 풍수지리설을 더욱 믿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력별 풍수지리설에 대한 의식은 <표 19-3>에 나타난 바와 같다. 중졸이하의 경우는 '전적으로 믿는다'가 15.1%, '믿는 편이다'가 50.5%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고졸은 '전적으로 믿는다'가 8.5%, '믿는 편이다'가 63.0%, 대졸 이상은 '전적으로 믿는다'가 2.2%, '믿는 편이다'는 60.5%로 나타나고 있다.

<표 19-3> 학력별 풍수지리설 의식

(단위: % (명))			
구 분	중졸이하	고 졸	대졸이상
전적으로 믿는다	15.1	8.5	2.2
믿는 편이다	50.5	63.0	70.5
안 믿는다	34.4	28.5	27.3
합 계	100.0(93)	100.0(365)	100.0(536)

전체적으로 중졸이하는 65.6%, 고졸은 71.5%, 대졸 이상은 72.7%가 풍수지리설을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력이 높을수록 풍수지리설을 더욱 믿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별 풍수지리설에 대한 의식은 <표 19-4>에 나타난 바와 같다. 100만원이하는 '전적으로 믿는다'가 10.2%, '믿는 편이다'는 55.9%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101~150만원은 '전적으로 믿는다'가 5.7%, '믿는 편이다'는 67.4% 151~200만원은 '전적으로 믿는다'가 4.3%, '믿는 편이다'는 67.4%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201~300만원에서는 '전적으로 믿는다'가 3.8%, '믿는 편이다'는 70.3%, 301만원 이상은 '전적으로 믿는다'가 6.9%, '믿는 편이다'는 63.2%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100만원이하는 66.1%, 101~150만원은 73.1%, 151~200만원은 71.7%, 201~300만원은 74.1%, 301만원 이상은 70.1%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소득별 풍수지리설에 대한 의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직업별 풍수지리설에 대한 의식은 <표 19-5>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전문-관리직의 2.3%가 풍수지리설을 '전적으로 믿고 있으며', '믿는 편이다'는 65.9%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사무직은 '전적으로 믿는다'가 3.5%, '믿는 편이다'는 74.6%, 판매-서비스직은 '전적으로 믿는다'가 9.0%, '믿는 편이다'가 57.7%, 주부는 '전적으로 믿는다'가 7.6%, '믿는 편이다'는 61.6%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

<표 19-5> 직업별 풍수지리설 의식

(단위: % (명))				
구 분	전 문 관 리 직	사 무 직	판 매 서 비 스 직	주 부
전적으로 믿는다	2.3	3.5	9.0	7.6
믿는 편이다	65.9	74.6	57.7	61.6
안 믿는다	31.8	21.9	33.3	30.8
합 계	100.0(173)	100.0(343)	100.0(201)	100.0(198)

<표 19-4> 소득별 풍수지리설 의식

(단위: % (명))					
구 분	100만원 이하	101~150만원	151~200만원	201~300만원	301만원 이상
전적으로 믿는다	10.2	5.7	4.3	3.8	6.9
믿는 편이다	55.9	67.4	67.4	70.3	63.2
안 믿는다	33.9	26.9	28.3	25.7	29.9
합 계	100.0(177)	100.0(230)	100.0(279)	100.0(182)	100.0(87)

으로 전문-관리직의 68.2%, 사무직의 78.1%, 판매-서비스직의 66.7%, 주부의 69.2%가 풍수지리설을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3. 성묘 및 부모님 묘자리 만족도

1) 성묘하는 조상묘

〈표20〉은 조상의 묘소 가운데 어떤 묘소를 성묘하는 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표 20〉 성묘하는 조상묘

(단위: % (명))

구 분	전 체
부모의 묘소(1대)	18.2
조부모의 묘소(2대)	33.5
증조부모의 묘소(3대)	17.2
고조부모의 묘소(4대)	11.0
선산이라 한꺼번에 다한다	14.0
가지 않는다	6.1
합 계	100.0(1000)

부모의 묘소만 성묘를 가는 비율은 18.2%, 조부모는 33.5%, 증조부모는 17.2%, 고조부모는 11.0%, 선산이라 한꺼번에 다한다는 14.0%로 나타나고 있으며, 안가는 비율은 6.1%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성묘가는 빈도는 〈표2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전혀 안간다'가 7.4%, '2~3년에 1번'이 7.3

〈표 21〉 성묘가는 빈도

(단위: % (명))

구 분	전 체
전혀 안간다	7.4
2~3년에 1번	7.3
1년에 1번	27.2
1년에 2번	40.2
1년에 3번이상	17.8
합 계	100.0(1010)

%, '1년에 1번'이 27.2%, '1년에 2번'이 40.2%, '1년에 3번이상'이 17.8%로 나타나고 있다.

2) 부모님의 묘지리에 대한 만족도 및 묘지 장소
부모님의 묘소에 대한 만족도는 〈표2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22〉 부모님 묘지리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 분	한분만 돌아가신 경우	두분 다 돌아가신 경우
만족한다	66.4	61.7
그저 그렇다	23.2	21.4
만족하지 않는다	10.4	16.9
합 계	100.0(327)	100.0(183)

먼저, 한분만 돌아가신 경우 응답자의 66.4%가 부모님의 묘지리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그저 그렇다'는 23.2%, '만족하지 않는다'는 10.4%로 나타나 묘지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두분 다 돌아가신 경우 부모님의 묘지리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61.7%이며, '그저 그렇다'는 21.4%, '만족하지 않는다'는 16.9%로 나타나고 있다. 한분만 돌아가신 경우보다 만족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묘지장소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23〉에 나타난 바와 같다. 먼저, 한분만 돌아가신 경우 선산이 56.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공설 공원묘지가 22.4%, 종교단체 묘지가 8.7%, 화장이 6.4%, 남의 산이 5.6%로 나타나고 있다.

두분 다 돌아가신 경우 선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묘지 장소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버지의 경우 선산이 52.4%, 공설 공원묘지 25.4%, 종교단체 묘지 5.9%, 남의 산 10.4%, 화장은 5.9%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경우 선산이 48.4%, 공설 공원묘지가 23.4%, 종교단체 묘지가 8.7%, 남의 산 10.8%, 화장이 8.7%로 나타났다. 선산의 비율이 낮고 화장의 비율이 아버지보다 약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3〉 묘지 장소

(단위: % (명))

구 분	한분만 돌아가신 경우	두분 다 돌아가신 경우	
		아버지	어머니
선산	56.9	52.4	48.4
공설공원묘지	22.4	25.4	23.4
종교단체묘지	8.7	5.9	8.7
남의 산	5.6	10.4	10.8
화장	6.4	5.9	8.7
합 계	100.0(356)	100.0(183)	100.0(184)

IV. 화장 및 납골당(묘)에 대한 의식

이 장에서는 화장 및 납골당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화장에 대한 의식은 화장에 대한 일반적인 의식과 함께 화장을 찬성하는 이유 및 화장 유언 의향과 화장후 유골 처리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화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화장 반대 이유 및 변화 의향 그리고 전통 제례를 할 수 있을 경우 화장 의향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납골당(묘)에 대한 인지도와 납골당을 권장할 경우 이용 의향 그리고 가족 납골당으로 조상유골의 이장 의향을 살펴볼 것이다.

1. 화장에 대한 의식

화장을의 경우 우리나라는 94년말 현재 20.5%로 일본의 97%, 태국의 90%, 홍콩의 72%, 스위스의 67%, 영국의 60%에 비하여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보건복지부, 1995). 그리고 상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화장률에서도 10.6%〈표9참조〉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화장에 대한 의식은 〈표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40.7%가 찬성하고 있으며, 반대는 33.8%로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25.5%는 모르겠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찬성 50.2%, 반대 49.8%보다 화장에 대한 기피 현상이 일정 정도

〈표 24〉 화장에 대한 의식

(단위: % (명))

구 분	비 율
찬성한다	40.7
반대한다	33.8
모르겠다	25.5
합 계	100.0(10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화장에 대한 의식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 화장에 대한 의식은 〈표24-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화장에 찬성하는 비율이 남성은 38.2%, 여성은 44.1%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화장을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표 24-1〉 성별 화장에 대한 의식

(단위: % (명))

구 분	남 성	여 성
찬성한다	38.2	44.1
반대한다	36.4	30.2
모르겠다	25.9	25.7
합 계	100.0(599)	100.0(424)

연령별 화장에 대한 의식은 <표24-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화장에 찬성하는 비율이 20대는 37.3%, 30대는 36.8%, 40대는 42.3%, 50대 이상은 50.0%로 나타나고 있다.

<표 24-2> 연령별 화장에 대한 의식

(단위: % (명))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찬성한다	37.3	36.8	42.3	50.0
반대한다	35.1	30.8	37.7	34.0
모르겠다	27.6	32.3	20.0	16.0
합 계	100.0(185)	100.0(39)	100.0(220)	100.0(212)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연령이 높을수록 화장을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력별 화장에 대한 의식은 <표24-3>에 나타난 바와 같다. 화장에 찬성하는 비율이 중졸이하 45.2%, 고졸은 41.6%, 대졸 이상은 39.7%로 나타나고

<표 24-3> 학력별 화장에 대한 의식

(단위: % (명))

구 분	중졸이하	고 졸	대졸이상
찬성한다	45.2	41.6	39.7
반대한다	39.8	36.7	30.7
모르겠다	15.1	21.6	29.6
합 계	100.0(93)	100.0(365)	100.0(537)

있다. 학력이 낮을수록 화장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학력이 높을수록 화장에 대해

<표 24-4> 소득별 화장에 대한 의식

(단위: % (명))

구 분	100만원 이하	101~150만원	151~200만원	201~300만원	301만원 이상
찬성한다	37.7	32.6	45.2	47.8	47.7
반대한다	38.9	42.6	28.5	25.6	34.1
모르겠다	23.4	24.8	26.3	26.7	18.2
합 계	100.0(175)	100.0(230)	100.0(281)	100.0(180)	100.0(88)

유보적인 태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별 화장에 대한 의식은 <표24-4>에 나타난 바와 같다. 화장에 찬성하는 비율은 100만원 이하가 37.7%, 101~150만원은 32.6%, 151~200만원은 45.2%이다. 201~300만원은 47.8%, 300만원 이상은 47.7%로 나타나고 있다. 101~150만원을 제외하고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화장에 대해 찬성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직업별 화장에 대한 의식은 <표24-5>에 나타난 바와 같다. 화장에 찬성하는 비율이 전문-관리직은 42.5%, 사무직은 33.3%, 판매-서비스직은 47.5%, 주부는 42.6%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24-5> 직업별 화장에 대한 의식

(단위: % (명))

구 분	전 문 관 리 직	사 무 직	관 매 서 비 스 직	주 부
찬성한다	42.5	33.3	47.5	42.6
반대한다	31.0	35.7	35.1	32.0
모르겠다	26.4	31.0	17.3	25.4
합 계	100.0(174)	100.0(342)	100.0(202)	100.0(197)

1) 화장을 찬성하는 경우

화장에 대한 찬성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 이유는 <표25>에 나타난 바와 같다. '부족한 묘지 문제

해결할 수 있다'가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국토이용율을 높인다'가 18.5%, '호화묘지 등 허례 의식을 줄인다'가 14.9%, '후손이 묘지를 돌보기 힘들기 때문'이 12.1%, '자연경관의 훼손을 줄인다'가 8.3%, '장례 경비가 저렴하다'가 4.4%로 나타나고 있다.

<표 25> 화장을 찬성하는 이유

(단위: % (명))

구 분	비 율
부족한 묘지문제 해결	41.9
국토이용율 높임	18.5
호화묘지 등 허례의식을 줄인다	14.9
후손이 돌보기 힘들기 때문	12.1
자연경관의 훼손을 줄인다	8.3
장례경비가 저렴하다	4.4
합 계	100.0(363)

그리고 "앞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화장을 할 것을 유언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화장을 찬성하는 사람의 69.0%가 '유언을 하겠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유언하지 않겠다'는 4.4%,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26.6%로 나타나고 있다.

<표 26> 화장 유언 의향

(단위: % (명))

구 분	비 율
하겠다	69.0
하지 않겠다	4.4
생각 안 해봤다	26.6
합 계	100.0(413)

"화장후 유골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납골당(묘)에 안장하겠다'는 응답이 45.9%(납골묘 15.8% + 납골당 30.1%)로 나타나고 있으며, '산이나 강에 뿌리겠다'가 38.3%, '생각 안 해봤다'가 15.8%로 나타나고 있다. 화장후 납골당(묘)에 묘지지기를 바라는 의식이 보건사회

연구원의 47.1%보다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산이나 강에 뿌린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인 50.7%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27> 화장후 유골 처리 장소

(단위: % (명))

구 분	비 율
납골묘에	15.8
납골당에	30.1
산·강에 뿌림	38.3
생각 안 해봤다	15.8
합 계	100.0(405)

2) 화장 반대

한편 응답자 가운데 화장에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왜 반대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물어 보았다. 화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표28>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전통적인 관습이기 때문에 화장이 싫다'가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두 번 죽는 것 같아서' 33.8%, '선산이 있기 때문에' 10.5%, '제사를 받지 못하기 때문' 8.3%, '종교상의 이유' 7.7%, '풍수지리설'이 4.9%로 나타났다.

<표 28> 화장을 반대하는 이유

(단위: % (명))

구 분	비 율
전통적인 관습	34.8
두 번 죽는 것 같아서	33.8
선산이 있기 때문에	10.5
제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8.3
종교상의 이유	7.7
풍수지리설	4.9
합 계	100.0(325)

전통적인 관습, 두 번 죽는 것 같아서, 제사, 풍수지리설 등은 모두 유교적 풍습에 기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장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유교적 풍습의 폐해와 함께 화장에 대한 선입견을 버릴 수 있는 정부 차원에서의 다양한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한편, 주위의 사람들과 사회의 지도층이 화장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면 화장에 대한 생각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표29>에 나타난 바와 같이 '화장을 하겠다'가 26.8%, 그래도 '화장은 안된다'가 73.2%로 나타나고 있어서 화장에 대한 태도가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될 가능성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화장에 대한 태도 변화는 여러가지 사회적인 여건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

<표 29> 화장에 대한 변화 의향

(단위: % (명))

구 분	비 율
예	26.8
아니오	73.2
합 계	100.0(328)

"화장을 하더라도 유골을 잘 정리하여, 유골을 납골당(묘)에 안장하고 전통적인 제례를 통해 조상을 모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면 화장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표3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생각해 보겠다'가 44.6%, '화장을 하겠다'가 13.8%, 그래도 '화장은 안된다'가 41.6%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긍정적인 응답이 비교적 높은 58.4%(생각해보겠다+화장하겠다)로 나타난 점이다.

<표 30> 전통 제례 한다면 화장 의향

(단위: % (명))

구 분	비 율
생각해 보겠다	44.6
화장 하겠다	13.8
그래도 화장은 안된다	41.6
합 계	100.0(334)

2. 납골당(묘)에 대한 의식

화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다. 먼저 화장을 하여 산이나 강에 뿌리는 형식과 납골당에 안장하는 것, 그리고 납골묘에 안장하는 방식이 있다.

여기서 납골당(묘)은 외국에서 주로 활용하는 장례법으로 화장후 유골을 함(그릇)에 넣어 일반 묘지나 일정한 장소에 보관토록 하는 방법이다.

<표 31> 납골당(묘)에 대한 인지도

(단위: % (명))

구 분	비 율
전혀 모른다	8.1
모른다	18.2
조금 안다	51.3
잘 안다	22.4
합 계	100.0(1021)

이러한 납골당(묘)에 대한 인지도는 <표3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전혀 모른다'는 8.1%, '모른다'는 18.2%, '조금 안다'는 51.3%, '잘 안다'는 22.4%로 나타났다. 납골당(묘)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73.7%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납골당(묘)을 권장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표32>에서와 같이 58.9%가 납골당(묘)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41.1%는 권장하더라도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도와는 달리 실제 납골당(묘)의 이용에 대해서는 망설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납골당(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표 32> 납골당(묘) 권장

(단위: % (명))

구 분	비 율
이용하겠다	58.9
이용하지 않겠다	41.1
합 계	100.0(995)

변화가 수반되어야 납골당(묘)의 이용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납골당을 권장하면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 "조상의 유골도 이장하여 함께 모시겠습니까?"는 물음에 대해서는 '이장하겠다'가 57.2%, '이장하지 않겠다'는 42.8%로 나타났다.

<표 33> 가족 납골당(묘)으로 조상유골 이장여부

(단위: % (명))

구 분	비 율
이장 하겠다	57.2
이장 하지 않겠다	42.8
합 계	100.0(568)

IV.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장례문화 의식을 상가에 대한 의식, 묘지에 대한 의식, 화장 및 납골당(묘)에 대한 의식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상가 의식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의금의 경우 1년 총액은 679,638원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우리나라 연평균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인 20,415,600원(통계청, 1995)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리고 서울시민의 경우 연평균 619,750원을 부의금으로 내고 있으며, 경기도민은 828,844원을 부의금으로 내고 있다. 경기도민이 209,094원을 더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의금에 대한 평균액에서 가족의 경우는 247,600원, 친구는 152,490원, 직장동료는 149,388원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가족이 230,090원, 친구는 133,802원, 직장동료는 131,544원이며, 경기도는 가족이 285,753원, 친구는 188,320원, 직장동료는 193,776원이다. 친구는 서울시, 가족과 직장동료의 경우는 경기도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연 평균 상가방문 횟수는 9.98회로 나타났다. 지역적인 구분에서 서울은 9.25회, 경기도는

11.74회이다. 서울의 경우 가족이 1.90회, 친구는 2.98회, 직장동료는 3.78회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기도는 가족이 2.21회, 친구는 4.40회, 직장동료는 5.28회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가족, 친구, 직장동료 모두에서 서울보다 방문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적인 특성상 경기도의 경우 소지역 단위로 형성되어 있어 친구나 이웃에 대한 참여가 많음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1년동안 20대는 482,747원, 30대는 646,380원, 40대는 754,074원, 50대 이상은 728,076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업별에서는 전문-관리직은 781,635원, 사무직은 653,576원, 판매-서비스직은 751,680원, 주부는 538,537원을 부의금으로 내고 있다. 전문-관리직과 판매-서비스직의 부의금 액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에서는 중졸이하가 583,800원, 고졸이 701,897원, 대졸이상이 687,750원을 부의금으로 내고 있다. 소득별에서는 100만원 이하는 431,435원, 101~150만원이 711,846원, 151~200만원이 646,774원, 201~300만원이 1,005,199원, 301만원 이상이 1,436,900원을 부의금으로 내고 있다. 소득이 많을수록 1년동안 부의금을 내는 규모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의금을 결정하는데 있어 경제 규모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의금 규모로 인해 가족의 부의금에 대해서는 48.8%, 친구의 부의금에 대해서는 62.4%, 직장동료의 부의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0%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부의금에 비해 친구와 직장동료의 부의금이 좀더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부의금을 내는 관행에 대해 85.2%에 달하는 사람들이 개선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례와 관련해서 장례비용은 7,411,520원이며, 부의금 수입은 9,409,730원으로 나타나 그 차이가 1,998,210원에 이르고 있어, 부의금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느끼게 해준다.

그리고 상가문제와 관련해서는 장의사 횡포에

대해서는 94.2%, 영안실의 횡포에 대해서는 94.3%의 응답자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장의 서비스업과 관련한 문제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로, 묘지에 대한 의식에서 묘지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88.9%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저 그렇다는 4.1%, 심각하지 않다는 2.5%, 모르겠다는 4.5%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묘지면적 축소에 대해 82.7%가 찬성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원묘지나 시한부묘지제도에 대해서는 각각 38.9%, 43.3%만이 찬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원묘지나 시한부묘지제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결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71.6%의 사람들이 풍수지리설을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화장에 대한 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화장에 대해서 응답자의 40.7%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9.3%가 화장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이 만약 화장을 하게 되면 전통적인 관습 즉, 제사나 성묘와 같은 것을 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납골당(묘)에 대한 질문에서 73.7%가 납골당(묘)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권장할 경우 납골당(묘)을 이용하겠다고 대답한 사람은 58.9%에 불과하다. 이것은 아직도 납골당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장례 문화는 전통적인 관습이 지배적인 형태로 남아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 이러한 것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나타나고 있다. 본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부의금이나, 묘지문제, 묘지면적 등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전통이라는 관습에 얽매어 아직까지 장례 문화의 개선에 대해 획기적인 변화를 실천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전통을 고수해야 한다는 고루한 생각 때문에 잘못된 관행을 지켜나가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전통이란 파기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무조건 고수하는 것도 잘못이다. 필요하다면 개선하고 발전시킬 때 전통으로서의 권위는 확립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례 문화도 잘못된 것을 고쳐 올바른 전통을 만들 때, 우리의 후손들이 이러한 전통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을 것이다.

알림

제33회 전국여성대회

일시 : 1996년 10월 12일(토)

장소 : 이화여대 대강당

주제 : 정보사회와 여성

문의 : (02)794-4560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강간범죄의 발생건수 및 범죄자수

해마다 범죄의 발생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그로 인한 여성의 피해를 분석하는 통계 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성범죄의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구조적인 여성문제의 하나인 강간범죄의 분석은 강간범죄의 특성상 실제 발생건수에 비해 신고율이 대단히 낮고, 기소를 또한 다른 강력 범죄에 비해 낮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강간범죄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공식자료를 대상으로 해야하는 제약이 있다.

1970년대 이래 강간범죄와 범죄자수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강간범죄자 또한 연령층이 다양화 되어 가고 있고 범죄자의 재범률도 증가하는 것을 볼때 강간범죄에 대한 교도대책 강구 및 조기 성교육의 실시와 사회적으로 강간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 및 기소율을 높이는 적극적인 강간문제 해결이 요청된다.

연도	강간범죄건수 (건)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 (건)	강간범죄자수 (명)	소년범죄비율 (%)
1970	1,659	5.1	1,939	31.7
1975	2,794	7.9	3,375	32.6
1980	3,977	10.4	5,672	40.1
1985	5,453	13.4	7,695	42.3
1990	5,519	12.9	7,438	35.9
1991	5,175	12.0	5,536	21.0
1992	5,465	12.5	5,400	19.8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신영순 총재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은 여성들이 원자력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원자력에 대한 필요성과 안전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결성된 여성원자력 유관단체이다.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은 여성들이 원자력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원자력에 대한 필요성과 안전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결성된 여성원자력 유관단체이다.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이 원자력 바로알리기 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은 원자력이 우리 생활속에서 이미 알게 모르게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반해 사람들은 아직도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조차 외면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원자력이라는 고도의 과학기술을 통해 에너지 자급을 이루고 전력의 안정적 수급을 가능케 함으로써 국가산업을 발전시키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은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핵단체나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원자력을 무조건 반대하도록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다. 원자력에너지는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조차 외면하고 원자력을 무조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손실이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원자력은 대체 에너지로써만이 아니라 환경문제 해결에도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화석에너지의 과다한 사용으로 산성비, 지구온

실화, 오존층 파괴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원자력에너지는 대체 에너지로써의 문제만이 아니라 맑고 깨끗한 환경보존에 도움을 주고 있다.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은 1년에 걸친 결성준비 끝에 지난 1995년 12월 14일 서울교육문화센터에서 15개 시·도 협의회원 2,000여명의 회원으로 창립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은 지난 1996년 5월 31일~6월 1일까지 제주대학교에서 개최된 원자력학회 '96춘계학술발표회에 초청되어 「원자력과 여성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하였다. 원자력계 과학자 및 유관단체 회원 400여명이 참석하여 연구논문 400여편이 발표되어 대성황리에 학술회의가 진행되었다.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의 앞으로의 중요한 사업계획은 조직 및 회원관리, 자체 홍보요원 양성, 외국의 WIIN과의 국제적인 교류 등이다.

조직 및 회원관리는 원자력연구소 연수와 원자력발전소 견학을 마치고 회원에 가입한 회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며 현재 회원수는 4,830명이다.

자체 홍보요원 양성을 위해서 새로운 회원중에 우수한 능력을 갖춘 회원을 선발하여 집중적으로 교육시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국제교류에서는 원자력 선진국과 국제교류를 통해 상호정보를 교환하고 원자력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유럽 원자력 선진국 여성들은 원자력여성기구 WIIN(Women Interestee In Nuclear)을 조직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여성들이 역시 WIIN을 조직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선 일본의 WIIN과 교류를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세계의 WIIN과 공동관심사를 함께 연구하고 상호방문, 정보교환 등을 통해 실질적인 국제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은 국내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인류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 정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적으로도 우리나라의 남북 문제가 핵무기 생산이나 핵전쟁으로 치닫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으로 결정된 것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이나 경제개발이 이룩한 거대한 일이다.

우여곡절 끝에 한반도경제개발기구(KEDO)가 탄생되었고 한국 전력공사가 주계약자로 지정되어 앞으로 함경북도 신포에 한국형 경수로 원자력발전소가 두개나 건설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형 경수로로는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지난 '84년부터 '94년까지 10년간 연구개발한 결과이다.

대북 지원사업이 진행되어 함경북도 신포에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려면 7년에서 10년정도 남북이 자연스럽게 왕래하게 되며 우리 기술이나 노동자들은 하루에 7,000명 정도가 건설현장에서 일하게 된다.

양의 물자가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중심이 되어 공급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남북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은 이러한 막중한 시대적 사명감에서 우리 여성들의 작은 정성이 보탬이 되어 21세기 과학기술개발을 돕는 것은 물론 국민적, 국가적 대사인 남북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자 더욱 더 연구하고 대국민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여성들, 남성들보다 임금 25% 적어

김은주 (연합통신 외신국 기자)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근로시간은 길지만 수입은 평균 25%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여성을 위한 많고 좋은 일자리-행동지침'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남성들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소득의 성별 불균형 현상은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임금 25% 적게 받아...ILO 보고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근로시간은 길지만 수입은 평균 25%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여성을 위한 많고 좋은 일자리-행동지침'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남성들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소득의 성별 불균형 현상은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린럼씨는 "갈수록 많은 여성들이 직업전선에 뛰어들고 있지만 이들 여성 근로자의 대부분은 단지 근로

빈곤층을 확대시키는 역할에 머물고 있다"고 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은 저임금, 저생산성, 불안정한 고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직업군에 집중돼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15세에서 64세까지의 세계 여성 인구중 45% 이상이 각종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만을 기준으로 하면 여성이 전체 근로인구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는 20년전 서유럽의 경우 여성이 전체 근로자의 37%, 미국의 경우 30%를 차지하던 것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늘어난 것이다.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 농업의 분야에서 여성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남성이 받는 임금의 평균 4분의 3 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이 25%의 임금차이는 선진산업국에서나 개발도상국에서나 마찬가지다.

▲ 일부 선진국의 경우 여성 실업률이 다른 지역에서보다 50~100%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 세계 고위 관리직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6%에 그치고 있다.

▲ 동남아와 동아시아에서는 여성이 수출 주도형 산업 근로자의 80%를 차지한다. 이와관련, ILO의 미셸 앙센은 사무총장은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에 있어서 여성들의 상대적인 저임금이 수출주도형 산업의 초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이와함께 주로 선진국에서이긴 하지만 여성들이 인력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이러한 업적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 최고 경영직, 관리직, 기술 및 행정직에 더욱 많은 여성들이 진출하고 있다. 일부 여성들은 각종 직업군에서 남성들을 제치고 최고위직을 차지했다.

▲ 미국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많이 개인 사업을 시작하는 추세다.

▲ 남녀평등임금법이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입법화됐으며 근로조건이 향상됨에 따라 여성들이 자신들의 직업적인 역할과 가정에서의 역할에 보다 쉽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 여성들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남성들의 가입률보다 높다. 또한 단체협약은 많은 국가에서 남녀간 평등을 진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여성 취업에 대한 이같은 진보에도 불구하고 앙센은 총장은 "기회의 평등 및 고용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처우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개선돼야 할 점이 아직도 많다"고 말했다.

ILO는 오는 2000년까지는 일부 선진국가들의 경우 노동력에서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비율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성들이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1%에 그칠 것으로 보이나 여성의 역할은 계속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에서 여성 취업이 늘어나는 것은 주로 부분근로시간제(part-time)의 실시때

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선진 28개국에서는 부분근로시간직의 65~90%를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ECD에 가입돼 있지 않은 국가들에서 여성들은 대체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낮은 임금에 시달리면서 비합법적인 지하경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태국법원, 유치원생 강간살해범에 사형 선고

전세계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가 문제가 되고있는 가운데 태국정부는 최근 유치원생 소녀를 학교구내에서 강간살해한 범인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문 일인데 방콕 근교에 있는 톤부리형사지방법원은 7월 20일 5세된 유치원생 소녀를 학교화장실에서 강간한 후 목졸라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수라판 사이통 피고인(28)에 대해 "피고인을 인간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곳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은 성범죄를 극형에 처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약전과자로 푸미폰 아둔야뎃국왕 즉위 50주년을 맞아 지난 7월 3일 특사로 풀려난 수라판 피고인은 이틀후인 7월 5일 방콕시 방플랏지역의 '왓 루악 국민학교' 유치원 부에 재학중인 수파나 체드추앙을 강간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이 사건 소식이 전해지자 범인을 즉각 처형할 것을 요구하는 전화와 편지가 경찰에 쇄도했으며 국회의원 25명은 반한 실라파-아차 총리에게 공개서한까지 보내

이집트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카이로에서 이발사로부터 할례시술을 받던 11세 소녀가 과다 출혈로 병원으로 후송된 뒤 사망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한편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가 최근 아프리카 국가들을 상대로 할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말리아와 지부티의 경우 전체 여성의 98%가 할례를 경험했으며 에티오피아, 에리트리아, 시에라리온 여성들의 할례경험은 각각 9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니세프는 전세계적으로 매년 2백만명
에 이르는 소녀들이 할례를 당하고 있으며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은데 따른 공포와
고통은 물론 감염, 불임 등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메가와티는 PDI 당수직에서 축출된 뒤

수하르토 대통령은 지난 60년대 중반 수카르노 대통령을 축출하고 정권을 장악한 이후 30년 동안 한번도 정치적 도전을 받은 적이 없다.





모집·채용상 차별, 승진·배치상 차별 늘어

(1996. 1. 1~7. 31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근로여성고발장구)

이번 분기에 특이한 사항은 전형적인 차별유형으로 최근들어 감소추세였던 모집·채용상의 차별이 증가하였고 부당대우중 승진 및 배치상의 차별을 호소하는 상담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 두가지 유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명백히 위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행정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 하겠다.

I. 접수현황

1996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본회 근로여성고발장구에 접수된 고발 건수는 72건(재상담제외)으로 고발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임금 16건(22.2%), 부당대우 14건(19.4%), 부당해고 10건(13.9%), 직장내폭행 8건(11.1%), 모집·채용상의 차별 7건(9.7%) 기타 14건(19.4%)이다.

임금문제는 임금채불이 10건,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문의가 4건, 기타가 2건이었다. 부당대우에는 승진 및 배치상의 차별이 8건, 차별정년, 임시근로에 대한 차별대우, 기타가 각각 2건씩 접수되었다. 직장내 폭행은 언어폭행을 포함한 물리적 폭행이 6건, 직장내 성희롱이 2건이었다. 기타사항으로는 모성보호규정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고 산업재해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밖에 이번 분기에 특이한 사항은 전형적인 차별유형으로 최근들어 감소추세였던 모집·채용상의 차별이 증가하였고 부당대우중 승진 및 배치상의 차별을 호소하는 상담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 두가지 유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명백히 위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행정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 하겠다.

II. 유형별 접수 사례

1. 모집·채용상 차별

(사례1) H일보 동부광고지사는 모집·채용공고에서 "정상의 신문광고인"을 모집한다면서 채용인원을 신문 광고직 신입: 남 ○명, 경력: 남 ○명, 광고디자인: 남 ○명으로 명시함으로써 노골적인 남녀차별 모집을 하였다.(’96. 3. 한국일보 게재)

(사례2) 주식회사 XX종합건설이 경력 및 신입사원을 모집하면서 관리직종 중 경리직(남)은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건설업체 근무경력자를, 경리직(여)은 상고졸이상인 자로 수도권 소재 근무가능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였다.(’96. 3 리쿠르트 Time 게재)

(사례3) D약품공업주식회사는 고졸신입사원을 모집하면서 생산부문의 응시자격을 남: ’6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여: ’95년 이후 고교졸업자로 명시함으로써 남, 여 응시자의 연령이 9~10세나 차이나게 하였다. 담당자에게 확인을 하니 남, 녀가 고시한 각각의 연령대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았다는 답변을 하였다.(’96. 4. 중앙일보 게재)

(사례4) 상담인의 딸(K씨)은 전주에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창원에 있는 산업재해 지정병원의 간호사 공개시험을 치워 합격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면접과정에서 결혼여부를 질문받은 K씨는 합격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두려워 미혼이라고 답변하였다. 최종합격통지서를 받은 K씨는 그후 기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거짓말을 하였다하여 불합격처리되었다고 한다.(’96. 5).

(사례5) 국가안전기획부는 지원채용공고(총무처공고 제1996-31호)에서 특정직 7급직원 응시자격을 '67년 1. 1이후 출생자, 병역을 필한자, 신장 165cm인자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여성의 응시를 배제하였다. 전화문의 결과 "각 부서에서 여성에 대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성을 뽑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96. 7.)

2. 부당대우

(사례6) 상담인은 ’91년 경기도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92년 7월 XX군으로 발령을 받았다. 공무원은 3년마다 순환근무를 하는데 전보를 받을 경우 우선순위는 시, 도간 연고지, 부모님 공양, 부부공무원이라고 한다. 그나마도 전입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시, 군청에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며 읍, 면, 동에 근무한 자는 도 전입시험을 볼 수 없다. 게다가 여성공무원이 도로 전입할 경우 8급 공무원은 9급으로 강임되었다가 3개월 후 복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여성의 전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여성공무원은 큰 피해를 보고있다.(’96. 1.)

(사례7) X시청 부녀아동상담소 소장(별정직 5급)으로 근무하던 상담인은 X시가 ’96. 1. 1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상담소를 폐지하여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다. X시가 상담소 폐지를 결정하자 상담인은 그 지역의 부녀아동상담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담소의 7명의 직원은 뿔뿔히 흩어지게 되었다. 상담인은 X시의회가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살려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종합사회복지관장에 별정 5급의 복수직렬로 조례를 개정하여 인사발령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그자리에 총무과에 근무하는 인사과장(행정5급)이 발령을 받았다. 별정직 여성공무원이 유일하게 갈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장에 정년을 몇개월 앞둔 총무과장을 인사발령한 것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강조하는 국가의 여성정책에 역행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한 상담인은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계획이다.(’96. 1.)

(사례8) 중소기업의 사무직원으로 일해오던 상담인은 최근 회사측으로부터 "승진누락"을 이유로 사직을 강요당하였다. 2년이나 늦게 입사한 남자직원이 먼저 승진을 하여 억울하던 차에 그동안 승진을 하지 못한 책임을 상담인에게 돌리는 회사측의 인사에 참다못해 회사를 대상으로 지방노동사무소에 차별승진으로 고소를 하였다. 근로감독관의 합의권유로 상담인은 마음을 돌려 다시 협상을 하고 있는데 회사측은 승진누락을 이유로 사직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상담인이 참석한 가운데 썼으나 그 각서를 상담인에게 주지도 않고 노동부에 보고하지도 않은 상태이다.(’96. 2.)

(사례9) 상담인 2인은 지난해 8월 15일 55세로 지류제조 회사인 ○○사를 정년퇴직하였다. 이들은 회사의 남녀차별정년에 맞서 3년간이나 법적 투쟁을 한 당사자이다. ’75년에 입사하여 선별, 포장업무를 하였던 상담인들은 남: 55세, 여: 53세의 차별정년에 걸려 ’92년 8월 퇴직하고 다른 동료직원이 부

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승소판정을 받아 '93년 7월 복직하였다. 그런데 회사측은 이들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하여 부당해고기간중의 월급을 지급치 않았고 이들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95년 11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회사측은 원고에게 밀린 월급을 지급하고 원고도 지급받은 퇴직금과 이자를 회사에 반납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가 상담인들이 퇴직금의 누진적용(단체협약상)을 주장하자 1차 정년시 수령한 퇴직금의 이자를 무리하게 요구하며 누진적용을 거부하였다.('96. 3)

(사례10) '87년 ○○백화점에 입사하여 수산물 코너에서 판매를 하다가 '95년 정년퇴직한 상담인은 그후 6개월 단위의 임시직으로 재입사를 하였다. 임시직이라 하여도 정규직과 똑같이 일해왔는데 7개월의 재계약을 앞두고 인사과장이 갑자기 "이제 나이도 많은데 일하는게 무리가 아니냐"며 은근히 재계약에서 탈락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96. 6.)

3. 부당해고

(사례11) 미술학원 강사인 상담인은 급성 폐렴에 걸려 지난해 1주일간 입원, 치료하였다. 원장의 동생인 동료선생에게 휴가를 해도 좋겠냐고 했더니 다 나올 때까지 다른 선생님을 쓰던가 원장이 지도하면 된다고 꼭 쉬라고 하여 '95년 12월 11일부터 한달간 휴가를 하기로 하고 '96년 1월 8일 학원으로 전화를 했더니 다른 교사가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96. 1.)

(사례12) XX백화점에서 7년 7개월 동안 근무하고 있는 상담인은 최근 산후휴가를 마치고 출근을 하였다. 휴가직후라 특별하게 많은 일이 없었던 상담인은 세일기간 중인 1월 14일부터 20일까지 옆 매장의 침구류 판매를 도와주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담인이 현금을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았다며 어떤 직원이 부서장에게 보고하였다고 한다. 상담인이 거들의 작용으로 불편하여 허벅지 부위를 만진 적은 있어도 전혀 근거없는 일이라며 항변했지만 부서장은 진술서까지 받아 놓은 상태라며 만약 퇴직하지 않을 경우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하였다. 상담인은 결혼후 출근하였을 때도 회사측의 권유로 조장을 그만두었고 임신후 "배불러서 판매할 수 있겠냐"며 퇴직을 은근히 강요한 점으로 보아 누명을 씌워 퇴사시키려는 의도인 것 같아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한다.('96. 2.)

(사례13) 상담인은 2년 6개월간 한국생명 XX영업소에서 일해오고 있는 영업부 직원으로 실적 50위 안에 드는 실력자이다. 그런데 어느날 영업소 소장과 팀원증원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는데 갑자기 소장이 자기에게 임명권이 있다며 그만두라고 한다.('96. 3.)

4. 직장내 폭행

(사례14) 상담인은 의류업체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데 업무관계로 다른 부서의 직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을 당했다. 얼굴이 심하게 붓고 팔, 다리에 멍이 들어 1주의 진단을 받고 경찰서에 갔는데 담당형사가 "맞아받아 얼마나 맞았겠냐"며 코웃음을 쳐 그대로 돌아왔다.('96. 1.)

(사례15) 상담인은 현재 모 슈퍼마켓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정류코너에 있는 동료남자직원의 언어폭력때문에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 상품의 측량관계로 저울을 이용하려 자주 그 코너에 가게되는데 그럴 때마다 "고마움을 몸으로 때워라", "같이 벗고 올라갈까?" 등의 심한 농담을 한다.('96. 2.)

(사례16) 상담인은 얼마전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수련의에게 심한 모욕을 당했다. 상담인이 문제의 수련의를 엘리베이터에서 만나 "올라가는 길에 오

후에 수혈할 환자한테 확인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갑자기 굳은 표정으로 "인턴에게 보고해! 몇년동안 일하면서 아직도 똥, 오줌도 못가리냐"며 호통을 쳤다. 옆에는 동료 간호사와 의사도 있었는데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였다.('96. 2.)

(사례17) 상담인은 ○○화재 전주지점의 설계사로 일하고 있는데 동료 남자직원에게 구타를 당해 코뼈가 부러지고 팔과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다. 상담인은 가해직원의 부인이 자주 사무실로 전화를 해 이것저것 물어보며 약간의 의붓증세를 보여 "부인에게 잘해주라"는 말을 했더니 갑자기 상담인을 회의실로 끌고가서 문을 잠그고 구타를 하였다. 현재 고소한 상태인데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법대로 하라고 큰소리를치고 있다.('96. 3.)

(사례18) 상담인은 유아교재 전문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영업실적이 좋아 최근 부장으로 승진하면서 사업부를 오픈하게 되었다. 오픈 기념으로 회식이 있어 사장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사장은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로 가던 상담인을 잡고 갑자기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런 사건이 있는 후 상담인이 이 사에게 보고하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냐며 상담인의 항의를 일축하였다. 심지어 에어로빅 강사로 일한 상담인의 경력을 들추며 꼬리를 쳤으니 원래 끼가 있다느니 하는 소리를 하여 그만두겠다고 사직의사를 밝히자 사업부 오픈시 낸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한다.('96. 4.)

III. 사례분석 및 처리결과

모집·채용상의 차별로 접수된 사례들은 모두 남녀고용평등법 6조 위반이며 노동부 지침에서 예시한 전형적인 모집·채용상 차별 유형과 일치한다. (사례1)은 여성에게 응모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며 (사례2)는 남녀분리모집에 해당된다. 본회는

각각의 사례에 대해 지방노동사무소로 시정을 권의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런데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업무의 과중과 여성근로자의 차별문제를 소홀히 다루는 관행때문인지 서로 관할을 떠밀고 있었다.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취업시장을 맞아 일간지를 중심으로 모니터를 한다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형식적으로 근로여성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일일이 모니터 할 시간이 없다고 한 근로감독관이 털어놓았다. 사실, 외형상의 모집·채용에 대한 차별은 행정당국의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당국의 철저한 단속 의지가 아쉽다.

또한 본회는 국가안전기획부의 차별모집에 대해 총무처와 국가안전기획부에 시정공문을 보내 이번 차별모집은 국가안전기획부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 하더라도 정보, 어학, 이공분야에서조차 여성을 배제함으로써 합리성을 잃었고 결국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등을 도입하는 정부의 여성사회참여 의지를 꺾는 처사이며 헌법의 평등권과 근로권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35조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였다.

참고로 지난 '95년 8월의 남녀고용평등법 3차 개정에 의해 사업주는 모집 채용함에 있어서 모집·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 하여서는 아니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 2항)

(사례7)의 상담인은 지역 여성단체와 여성공무원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구명운동을 벌였으나 상담인이 원하는 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 임명되지 못하고 일반직 6급으로 복직되었다. 또한 (사례8)의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의 중재로 사측과 합의하여 부당해고 당시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고 4여년간의 법적투쟁을 마감하였다. 반면에 (사례12)의 상담인은 수차례의 상담을 통해 인사위원회에 참가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졌으나 주위 동료들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껴 스스로 퇴사를 결정하였다.

여름과 함께 시작한 세 드라마



이번에 모니터링 한 KBS2 '신고합니다'와 MBC '아이싱', SBS '아빠는 시장님' 이 세 드라마는 각각 색다른 소재와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서 시청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이에 본회 매스컴모니터회는 접근방식이나 표현형식에 있어 선명히 구분되어 있는 이들 드라마들의 장단점을 짚어 보았다.

여름이 시작하는 7월 1일, 방송 3사에서는 일제히 새로운 드라마들을 방영하기 시작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매스컴 모니터회는 7월 10일 모임을 갖고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이들 드라마, KBS2 '신고합니다'와 MBC '아이싱', SBS '아빠는 시장님'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토의하였다.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로 '아이싱'과 '신고합니다'는 각 4회분이었고 '아빠는 시장님'은 7회분이었다. 세 드라마들 중 '아빠는 시장님'은 시트콤으로 두 드라마와는 성격이 다르나 동일시점에서 방영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같이 모니터링하게 되었다.

이 세 드라마는 각각 색다른 소재와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서 시청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

고 있다. '신고합니다'는 군대생활을 주제로 선택하여 남자 시청자들에게 향수를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아이싱'은 빙판을 질주하는 젊은이들의 열기로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식혀주고 있다. 또한 '아빠는 시장님'은 'LA 아리랑'의 인기를 업고 시트콤의 맥을 잇고 있다. 이렇게 세 드라마들은 접근방식이나 표현형식에 있어 선명히 구분되어 각 드라마별로 장단점을 짚어 보기로 하였다.

KBS2 '신고합니다'

우선 '신고합니다'는 엄격한 규율과 제한된 행동반경으로 무섭게만 느껴지는 군대생활을 요즘 젊은이들의 구미에 맞게 가볍고 코믹하게 그리고 있어서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 개성이 뚜렷한 인

물들의 성격묘사와 행동들이 드라마에 생동감을 주고 있는 점도 이 드라마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스튜디오를 벗어난 야외촬영으로 생생한 현장감을 주는 것도 여름철 드라마로서 답답하지 않아 좋다.

그러나 이 드라마는 평소 겪어보지 못한 육체적 고통과 사회와의 단절, 구속으로 인해 야기되는 힘든 군생활을 너무 재미있게 그림으로써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요즘 군복무를 기피하는 신세대들에게 군대의 이미지를 바꾸는 데에만 신경을 썼지 왜곡된 정보로 인해 나중에 겪게될 혼란은 배려하지 않은 듯하다.

드라마 내용 중에는 군대를 갔다오지 않은 사람이 보더라도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장면들이

너무 많다. 신병(구본승 분)이 벌을 받는 자리에서 뼈빠가 울리니까 벌받는 도중에 손을 내리고 뼈빠를 누르고, 그후 전화를 거는 장면이라든지 주인공(차인표 분)이 평일 낮에 부대에서 벗어나 넷가에 여자와 함께 한가롭게 앉아 있는 장면, 구이병(구본승 분)의 여자친구가 내무반에 들어와 있는 일 등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민간인과 군인이 격의없이 지낸다는 의도는 좋으나 부대 밖의 술집인데도 군인들이 평일에도 수시로 드나들며 군 내부시설처럼 이용하는 것도 납득이 안된다. 술집에 있는 은실이 망원경으로 부대 안을 들여다 보는 것도 군의 보안상 있을 수 없는 일로 본다.

주인공(차인표 분)이 육사를 중퇴했는데 신병훈련 받고 이병부터 군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어거지이다. 육사를 다니다가 본의 아니게 중퇴하게 된 경우 육사에서 교육을 받은 기간은 군복무 기간으로 인정해서 거기에 맞는 계급으로 군생활을 시작한다는 것 정

도는 일반인도 알고 있다. 이렇게 극의 재미를 위해서 지나치게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오히려 극에 대한 흥미를 잃게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 소재를 코믹하게 다루기 위해서 주인공의 인물들을 너무 회화화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군대가 아무리 민주화되고 상하간에 격의가 없이 친밀해진다고 하더라도 군이란 명령체통에 있어서 엄격한 룰이 적용되어야 한다.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억지 설정은 군의 위상을 해칠 우려가 있다.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이 모이면 가장 열을 올리며 이야기하는 화제가 군대에서 겪은 이야기이다. 아련한 향수까지 느끼며 신나게 이야기하는 것은 힘들었던 시절을 잘 지내고 나면 그 시절은 자신감과 긍지로 남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예를 보면 꼭 편하고 재미있는 것만이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신고합니다'는 군생활을 너무 미화하여 가볍게 그림으로써 젊은 시절에 겪을 수 있는 특수한 경험을 오히려 약화시

키는 듯하다. 그리고 군대라는 조직이 일반사회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 무대만 군대이지 군 드라마로서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MBC '아이싱'

'아이싱'은 아이스하키를 통해 우정, 사랑, 형제애를 그리고 있는 스포츠 드라마이다. 아직은 대중적인 스포츠가 아닌 아이스하키를 설정한 점도 돋보이고 인물들 간의 갈등도 부리없이 잘 표출하고 있다.

아이스하키의 생명은 속도감이다. 얼음판 위를 질주하는 선수들의 거친 숨소리와 스틱이 부딪치는 파열음, 그리고 선수들간의 격렬한 몸놀림이 아이스하키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아이싱'은 성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스하키는 일반대중에게 아직은 친숙한 스포츠가 아니므로 시청자의 대부분은 아이스하키의 규칙이나 경기방식에 어둡다. 경기에 대한 이해없이 드라마를 즐기기는 어려우므로 극속에서 자연스럽게 시청자의 이해를 돕는 설명이 곁들여진다면 재미를 더할 것이다.

신세대를 겨냥해서 만드는 드라마들의 대부분이 표피적인 재미에만 열을 올리는 경향과는 달리 진지하게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것도 이 드라마의 좋은 점이다. 강도높은 훈련과 잘못된 것에 대한 때론 징계, 비굴한 승리에 괴로워하는 젊은대 선수들의 모습 등은 젊은 세



대에 대한 기성인들의 편견을 조금은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서로 라이벌이면서도 우정을 잃지 않는 장우와 윤혁의 모습이 든든하고 윤혁과 윤찬 형제간의 사랑과 갈등도 극의 재미를 더한다. 윤혁과 서영의 사랑, 장우와 서영의 관계가 혼란 삼각관계로 그려지지 않고 윤혁의 죽음뒤에 오는 새로운 사랑의 암시로 나타나는 것도 신선하다.

하지만 윤혁의 사고를 서영의 콤플렉스 거울이 깨지는 것으로 암시하는 것은 너무 구태의연한 발상이고 사고를 당할 때에도 서영의 모습을 보고 웃음지은 후 달려가 넘어지는 것도 너무 뻔하여서 예전에 보았던 드라마를 다시 보는 느낌이다. 그리고 아이스하키가 인기 스포츠가 아니라 할지라도 라이벌인 '연선대와 경운대'의 결승전에 관중의 수가 너무 적어 썰렁한 속에서 경기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감이 떨어진다. 현재 방영되는 드라마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의 하나로 대중교통 이용의 기피를 들 수 있다. 이 드라마도 예외는 아니어서 대학생인 주인공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다닌다. 이것은 운동장비가 무겁고 부피가 큰 아이스하키 선수들이기 때문에 현실의 반영일 수도 있으나 촬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측면이 강한 것 같다. 현실적으로 자가용으로 인한 교통혼잡이 극심하고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편의적 발상은 자가용



죽을 더욱 양산하는데 기여를 할 것이다. 특히 이 드라마의 주요 구성원이 학생들임을 감안한다면 과도한 자가용 이용은 자제해야 한다.

SBS '아빠는 시장님'

타 방송사에 비해 시트콤에서 앞서가는 SBS가 'LA 아리랑'의 뒤를 이어 '아빠는 시장님'을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제목에서 암시하듯이 지자체 이후 '민선시장'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일반 시민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주는 '시장'을 작품의 소재로 끌어들이는 SBS의 발 빠른 대응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매화의 주제도 보통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부딪칠 수 있는 일상을 재미있게 엮고 있다. 시장을 가까이 온 이웃으로 인식하게 하는 이 드라마는 '유치원에 간 시장님'(6화)에서는 시장이 아이들의 교육에 직접 참여하게 한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본다. 그리고 시장 부인은 유치원 원장이고 아들은

소아과 전문의, 딸은 성우, 시장의 동생은 택시 운전사 등으로 식구들이 모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설정도 바람직하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는 건강한 웃음을 유발하기 보다는 비속한 언어, 경망스러운 말장난과 함께 식구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예의를 무너뜨리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화목하고 자유로운 관계인 양 착각하게 만든다. 할아버지(이대근 분)가 할머니(여운계 분)에게 식구들 앞에서 하는 말이 '옆구리 쿡쿡 찔렀지 허벅지 뽀뽀했나'(3화) 하는 듣기에 민망한 말을 한다. 6화 '유치원에 간 시장님'에서 아들(변우민 분)은 동요를 개사하여 '영당을 까뒤집었조...'라는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 등 이런 저속한 말장난으로 가득차 있다. 아버지가 준 용돈을 보고 딸(이상아 분)이 '벤딕이 소갈딱지만 하다'(4화)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말들을 내뱉으면서 시청자들

에게 웃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어처구니가 없다.

3화 '참을성에 관하여'에서 식구들의 참지 못하는 습관을 고치겠다고 시장부부가 부모와 자식들 모두를 속이는 것도 목적만 좋으면 수단은 상관없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유포시키는 것이다. 또한 아버지(최민식 분)가 아들의 버릇을 고치겠다면서도 아들과 싸고서는 방 밖에 있는 엄마를 속이느라 때리는 시늉을 하고 맞는 시늉을 하면서 질질거리며 춤을 추는 것도 지나치다. 그리고 '유치원에 간 시장님'에서 망치가지고 상대방 때리는 게임도 왜 꼭 그런 게임으로 아이가 어른의 머리를 계속 때리게 하는지 알 수 없다. 어른과 아이가 격의없이 친하게 지내는 것과 어른을 가지고 노는 것은 다르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여러 가치를 배운다. 그런 망치놀이를 하면서 어른의 머리를 때리며 아이가 배울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직업이 시장인데도 직업에 관련된 일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제목을 '우리 아빠는 시장님'으로 했다면 당연히 시장으로서 업무도 보여주어야 한다. 시민의 고충을 듣는다는가 시에 필요한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가 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민선시장이라는 좋은 캐릭터를 가지고 구태의연한 내용밖에 만들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그리고 시

장의 집이 너무 서구적으로 설정된 것도 아쉽다. 이 집은 외국의 어느 집 같지 우리나라의 집 같지 않다. 외관 뿐만 아니라 실내도 지나치게 서구적이고 색깔도 강렬하여 인물보다 배경에 시선을 많이 뺏긴다. 군데군데 삽입되는 웃음소리도 너무 과장되어 어색할 때가 많다. 5화 '만남'에서 아들(변우민 분)이 '마음씨 좋고...' 하면 얼굴은 별로겠네'라는 왜곡된 관념을 드러내는 것도 주의했어야 할 부분이다. 시장으로 분한 한진희는 '바람은 불어도'의 캐릭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어머니로 나온 이경진과 아들인 변우민의 연령차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것도 어색하다. 집안에서 창문을 통해 보이는 바깥 풍경과 집 밖에서 보여주는 주변 풍경이 너무 다른 것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장집, 동생집, 유치원, 병원 등으로 장소를 다르게 하여 시트콤의 한계를 벗어나려고 애쓴 흔적도 보인다.

맺는 말

실제로 군대에 가 있는 인기 탤런트들을 동원하여 군의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시키기 위해 만든 KBS2의 '신고합니다'는 병역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군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앞으로 겪게 될 군에 대한 정보를 주고있다. 그리고 병역을 필한 남자들에게는 힘들었지만 보람있었던 젊은 날의 소중한 추억을 되살리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드라마틱한 전개를 위하여 사실을 너무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군생활은 사실만을 이야기하더라도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 차있는 미지의 세계일 것이기 때문이다.

무더운 여름을 겨냥하여 만들어진 MBC의 '아이싱'은 아이스하키를 하는 장면에서도 경기를 매끄럽게 보여준다. 지난번 미숙한 농구 경기를 보여 주었던 '마지막 승부' 보다 진일보한 모습으로 스포츠 드라마로 손색이 없다. 신세대를 겨냥한 드라마인데도 진지한 내용전개로 트렌디 드라마를 벗어나 있다. 이런 시도가 앞으로 스포츠 드라마에 좋은 지표가 될 것이다.

SBS의 시트콤 '아빠는 시장님'은 순발력있는 기획으로 지자체의 분위기를 드라마에 끌어들이고 있다. 좋은 소재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하게 풀어나가는 방식이 안타깝고 지나친 말장난으로만 웃음을 강요하는 것도 시정되어야 한다. KBS의 외화시트콤 '아빠 뭐하세요'를 보면 많지 않은 출연자와 단순한 소재로도 건강한 웃음을 선사하고 있다. 끊임없이 웃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꼭 필요할 때 웃을 수 있게 하면 된다. 가족간에, 사람들간에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예의에서 벗어나지 않은 건강한 내용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제공해 주기 바란다.

정리: 주혜숙 (본회 매스컴 모니터)

진행자의 이름을 내건 토크 쇼



이런 모니터링 대상 프로그램은 각 방송사의 토크 쇼 중에서 진행자의 이름을 내건 토크 쇼, 5개 프로그램이었다. 진행자의 이름을 내건 토크 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를 최대, 최고의 장점으로 삼겠다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모니터한 결과는 진행자의 퍼스널리티를 살린 특색있는 진행이나 초대 손님, 시청층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매스컴 모니터회는 '96년 7월 10일부터 7월 23일까지 2주간에 걸쳐 각 방송사의 토크 쇼 중에서 진행자의 이름을 내건 토크 쇼, 5개 프로그램을 모니터하였다. 대상 프로그램은 화요일 밤 11시 KBS2 '노영심이 여는 세상', 수요일 밤 11시 SBS '이홍렬 쇼', 금요일 밤 9시 50분 MBC '김동건의 텔레비안 나이트', 토요일 밤 9시 KBS2 '이문세 쇼', 일요일 밤 9시 50분 SBS '이주일의 투나잇 쇼'이었다.

진행자의 이름을 내건 토크 쇼는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를 최대, 최고의 장점으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또한 진행자로서도 자기 이름을 내건 토크 쇼는 자신에 대한 최고의 인정이자 예우

이기에 방송 종사자들이 꿈꾸는 최상의 자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처럼 큰 영예와 책임이 따르는 프로의 진행은 일반 토크 쇼와는 다를 것이라 기대되고, 또 초대 손님의 수준이나 대화에 있어서도 일정수준 이상이기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2주간 각 프로그램을 2회씩(올림픽 중계 방송으로 '이문세 쇼'와 '노영심이 여는 세상'은 1회가 결방되었다) 모니터한 결과로는 진행자의 퍼스널리티를 살린 특색있는 진행이나 초대 손님, 시청층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정도의 대담 프로라면 굳이 진행자의 이름을 내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느낌이었다.

진행자의 개성 살리기 미흡

진행자의 전문성에 따라 노영심과 이문세라면 음악이 함께 하는 쇼를, 이주일은 코미디와 정치, 이홍렬은 밝은 개그 쇼, 김동건은 진솔한 인생 이야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문세 쇼'를 제외하고는 이같은 특성을 살린 프로가 없다. '이문세 쇼'도 모니터 기간 중인 7월13일 방영분에서는 올림픽 결방으로 인한 결산 형식이어서 진행목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5개 프로가 그때그때 화제가 되는 인물을 초대하여 사담을 나누는 수준이었다. '노영심이 여는 세상'은 음식을 주 아이টে로 삼아 진행하고 있는데 아이디어는 새롭지만 진행이나 내용에 있어 미숙함이 보이고 깊이도 결여되어 있다. 7월16

일 방영분에서 공옥진씨대를 방문했는데 공옥진씨 개인 이야기와 음식 이야기를 함께 하는 바람에 그 지방 별미나 공옥진씨대 별미, 혹은 공연에 얽힌 이야기 어느 쪽도 충족시켜 주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 음식 예절상 입안에 음식이 있는 상태로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밥상을 앞에 놓고 흉내내는 것은 보기가 민망하다. 밤 시간의 음식 이야기와 시식을 어떻게 소화해 내느냐를 좀더 연구했으면 한다. 그리고 노영심은 어눌하지만 솔직한 진행으로 호평을 받아왔지만 이같은 진행이 신선하게 보이는 단계는 이미 지났으니 전문 진행자로서의 세련됨을 보여야 할 것이다. 친분있는 이들과는 반말로 잡담을 나눌만큼 풀어지는 반면에 안면없는 어른 손님을 대할 때의 굳어지는 태도는 둘 다 토크 쇼 진행자로서의 자질로는 실격이라고 생각한다. 초대손님과의 개인적 친분 정도를 떠나서 객관적 태도로 손님에게 꼭 던져야 할 질문, 들어야

할 대답을 끌어내는 노련한 전문 MC가 되었으면 한다.

'이문세 쇼'는 음악이 있는 이야기 마당 형식이어서 진행자의 퍼스널리티를 가장 잘 살린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의 연장으로 여겨질만큼 영상매체의 특성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이문세 개인에 대한 자라들이 자주 강조되어 거슬렸다. 이번 모니터 기간 중(7월13일분)에는 올림픽으로 인한 3주간의 결방을 예고하며 상반기를 결산하는 특집이 방송되었다. 올림픽으로 인한 결방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과연 이 프로가 결산할만큼 의미있는 프로였는지, 3주간의 결방에 그토록 자화자찬하는 시간을 마련해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주일의 투나잇 쇼'는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점을 초대손님에게 상기시키며 방청석 박수까지 자주 유도하는데 프로 진행은 성적 농담 위주여서 아쉽다. 세계 정상에 정치 만화가를 초대했으

면(7월14일) 최소한 시사 만화가로서 한국의 정치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쯤은 할만 한데 '청와대 칼국수를 먹어봤느냐'는 정도의 질문만 하고 있다. 어떤 손님을 초대하든 그의 직업, 일에 대한 전문적인 질문보다 개인생활, 에피소드 중심의 우스개거리를 주고받는 것은 5개 프로가 다 해당되지만 특히 '이주일의 투나잇 쇼'는 심하다. 7월14일 한지일과 여배우 초대는 '성인용 비디오' 홍보와 '성인용 에정록 출연 여배우' 옹호 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난 예로 '이주일의 투나잇 쇼'의 성격과 폐단을 단적으로 시사한다. 자기 자식도 못보게 한다는 비디오를 제작하면서 그 사회적 책임을 부모와 비디오 대역업자에게만 전가시키는 출연자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내달라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지나친 처사다. 얼마전 성인용 비디오의 저속한 제목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후 겨우 잠잠해 지는 때에 다시 한번 그들을 불러내어 화제로 삼는 저의가 무엇인지, 제작진의 가치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홍렬 쇼'와 '이주일의 투나잇 쇼'은 끝 멘트를 성적 농담으로 채워야 한다는 강박 관념을 갖고 있는데 그 농도나 유치함에 있어서 '이주일의 투나잇 쇼'는 건강부회에 품위마저 포기한 상태다. 7월14일 끝 멘트에서 인터넷에 나타난 일본 여성의 남편에



대한 인식을 밝히면서 "남편이여 사정없이 잘해주자"는 식으로 맺는 것이 그 예다. 다시 태어나도 남편과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것은 성적 불만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텐데 이런 억지 연결과 강조는 유치하기 짝이 없다.

'이홍렬 쇼'는 코미디적인 순발력이 돋보이는 밝은 진행을 하고 있어 진행자의 자질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평을 받았다. 야참 코너에 어울리는 요리의 선택, 요리를 미리 연습해 온 듯 숙달된 솜씨를 보이면서 초대 손님과의 이야기 진행, 방청석의 참여 등을 무난하게 유도하고 있다.

진행자의 자질이나 지명도를 볼 때 가장 아쉬운 프로가 '김동건의 텔레비안 나이트'이다. 수준있는 손님과 세상 사는 지혜를 주고받는 사랑방같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진행자가 연예인, 모델 등 어느 프로에 나와도 상관없는 인물들과 해도 그만, 물라도 그만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너무나 소모적이다. 김동건의 진행은 마지못해 하는 듯, 초대 손님과의 간격이 느껴질 정도로 딱딱하기까지 하다. 코믹한 요소로 뒷받침해 주려는 의도겠지만 전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불필요한 보조 진행자(김홍국)을 두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점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텔레비안 나이트'라는 제목에서 연상되는 '아라비안 나이트'와 김동건,

그리고 대담 내용이 서로 어울리지 않으므로 '김동건의 텔레비안 나이트'라는 제목부터 다시 고려하여 김동건의 이미지와 자질을 살릴 수 있는 프로로 개선되었으면 싶다.

초대손님 차별화와 대화 내용 진행자의 개선 다음으로 토크쇼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초대 손님이다. 5개 프로는 연예인이 압도적으로 많이 초대되고 그 다음으로는 그때그때의 화제 인물이 분산 초대된다. 따라서 어느 프로를 보면 어떤 손님들이 초대되어 어떤 수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다는 것을 전혀 짐작할 수 없다. 프로 성격에 어울릴만한 손님을 초대하기보다 타 방송사에 뺏기지 않으려는 듯 내한 인사는 무조건 출연시키고, 짧은 시간에 나누는 대화는 피상적이다.

7월19일자 '김동건의 텔레비안 나이트'에서 내한 모델 에반젤리 스타와의 인터뷰는 김동건이 직접 인터뷰한 것인지 의심스러웠다. 두 사람이 한 화면에 잡히는 장면도 없었고 질문하는 김동건의 굳은 표정과 몸가짐이 이런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였다. 반면 같은 날 이정섭, 김진진은 밤 새워 이야기해도 모자랄만큼 구수한 이야기 보따리를 펼쳐 놓았다. 그런데도 시간에 쫓겨 이야기를 끝내는 것이 아쉬웠다. 한 회에 토크 대담을 3건씩 넣으려 애쓰지 말고

유익한 이야기거리가 많은 손님에게는 한회를 모두 할애하고, 소식만 알릴 정도의 손님은 단신으로 처리하는 융통성을 보였으면 좋겠다.

초대 손님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가 없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7월12일 '김동건의 텔레비안 나이트'의 초대 손님 홍진희는 굉장히 바쁜 연예인이라는 점만을 반복 강조했는데, 어떤 이력을 가진 인물이고 어느 프로에 어떤 역할로 출연하는 연예인인지 세세히 알지 못하는 시청자 입장에서 답답하기 짝이 없었다. 7월17일자 '이홍렬 쇼'의 경우도 안재욱, 신동엽에 대한 소개없이 두 사람이 절친한 친구로서 장난친 추억담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초대 손님을 처음 보는 시청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미 잘 알려진 인물이라고 판단되어도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이력은 항상 소개해 주는 것이 시청자에 대한 예의라고 본다.

7월10일 '이홍렬 쇼'의 이영하 초대는 이영하가 영화배우인지 아니면 열잡 아저씨인지 모를 정도의 이야기만 나누었다. 영화배우를 초대했으면 영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상식일텐데 자식, 강아지 키우는 이야기를 하는 정도였다. 이런 식의 잡담 끝에도 항상 "좋은 영화 기대합니다"로 마무리하는데 너무 낯 간지러운 멘트다.

보여 주어야 할 것과 여과되어야 할 것

생방송이라 할지라도 미리 각본이 짜여졌다는 것은 이제 웬만한 시청자라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점을 역이용해서 '이건 각본에 없었던 건데', '아까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식으로 실수나 솔직함을 방송하는 것을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건 지나치다. 7월16일 '노영심이 여는 세상'에서 변진섭의 새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노영심이 우는 장면을 장시간 내보낸 것, 7월17일자 '이홍렬 쇼'에서 이다도시에 대한 몰래 카메라 방영으로 전반부를 메운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 두 장면은 미리 연출된 것이라 짐작되지만 설사 연출되지 않은 것이라 해도 이 정도라면 시청자에 대한 황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토크 쇼 진행자가 영영 우는 장면을 본다가나 이유없이 우물당하는 외국인을 지켜보면서 기쁨을 느낄 시청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초대손님에 대한 사전 공부를 철저히 해서 그 사람만이 가진 독특한 이야기를 어떤 초대손님에게서라도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진행자의 자질이며 토크 쇼의 본질이다. 그것이 시청자에 대한 최고의 서비스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똑같은 포맷과 방청석 손님 시작 멘트, 3명 정도의 초대소

님과 잡담, 사이사이 끼어드는 보조 진행자의 우스개말과 행동, 그리고 앞뒤가 잘린 생음악 연주 삽입, 마무리 멘트. 이는 5개 프로의 기본 포맷이다. 마치 토크쇼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불문을 이 존재하는 것 같다.

물론 '명사 가정탐방', '영상 삽입'(노영심), '시청자 제작 토크 쇼', '보통사람에게도 역사는 흐른다'(이홍렬)와 같은 색다른 코너들이 있다. 그러나 '시청자 제작 토크 쇼'(이홍렬 쇼)는 3회째 아무런 설명없이 빠졌고, '보통 사람의 역사'는 자막으로 흐르는 역사적 사건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그 사람과의 연관성도 부족하다. 이런 특색있는 코너를 좀더 성의있게 발전시켰으면 한다.

'이문세 쇼'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연인커플 방청객(부녀, 사제 등도 괜찮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이제까지의 분위기로 봐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노영심이 여는 세상'의 20대 방청객을 빼고 나머지 프로의 방청객은 대개 40~50대 아줌마들이다. 이는 이 프로들의 시청층 타겟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적 농담을 빼지 않고 집어 넣는 것도 중년 주부층에 대한 제작진의 고정된 관념을 반영하고 있다. 심야시간대의 토크쇼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 농담은 허용될 수 있지만 방청석을 가득 메운 40~50대의 주부들을 보면 마치 그들은 그런 농담만을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

'코르셋' 주연배우 이해은을 초대한 기이한 살빼기 소개(이홍렬 7월10일), 내 몸에 맞는 수영복 소개(7월12일 김동건), 노사연을 초대하여 '살을 뺏아야 할 때'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여성이 다이어트를 결심할 때라는 설문 조사 발표, '...부인' 시리즈 비디오 제작자 한지일과 두 주연여배우



짐 자무쉬 감독의 영화 '천국보다 낯선'

이세기 (소설가)

영화의 재미는 스토리를 따라가기보다 새로움을 접할때 흥분과 정취가 살아나는 법이다.

액션에 스타일에 적당한 서스펜스를 섞어서 이것저것 뜯어부쳐 모아놓은 영화나 사랑하는 연인들의 얽히고 설킨 오해가 우여곡절 끝에 해피엔딩으로 줄달음치는 뻔한 결과는 영화의 재미와는 전혀 거리가 멀다.

실험영화나 언더그라운드스 왓지 삭막하고 딱딱할 것 같지만 신선한 의식의 흐름때문에 영화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고 영화만의 특별한 특징과 매력에 새삼 눈뜨게 된다.

짐자무쉬 감독의 흑백영화 '천국보다 낯선'이 바로 그런 영화다. 원제는 Stranger than Paradise.

미묘한 허무주의로 시작되어 냉소적 회의로 끝나는 이 영화는 극소주의적인 플롯의 단순화와 스타일의 절제가 인상적으로 돋보인다. 시퀀스 쇼트들의 무미건조한 연쇄를 잔인하리만큼 통제하는가 하면 검은 삼입화면들이 내러티브의 흐름을 차단하면서 미국의 꿈을 철저하게 파편화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스토리는 무위도식으로 시간을

죽이는 헝가리인 윌리(존 루리)와 부다페스트에서 뉴욕으로 날아온 사촌여동생 에바(에스체르 발린트), 윌리의 단짝 친구인 에디(리처드 에드슨)가 사기도박으로 딴 6백달러를 들고 '뭔가 재미있는 일을 찾아' 차를 몰고 클리블랜드로 떠나는데서 시작된다.

낯선 곳에 대한 기대와 설렘은 그들에게 새로운 의욕, 모험심이라든가 활기, 희망을 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공간은 네오리얼리즘의 침울과 바람조차 존재하지 않는 황폐한 현실만이 이어질 뿐 어디를 가도 '새로운 구석'이라곤 찾아볼 수 없이 썰렁한 이리 호수의 절경과 플로리다의 젯빛 태양, 시멘트도시의 추악한 모습만이 눈앞에 펼쳐진다.

결국 윌리는 부다페스트행 비행기에 올라타고 에디는 뉴욕으로 다시 되돌아갔으며 기다릴 고도조차 없는 에바는 오갈데없는 낯선 미국의 한 끝, 모텔방에 혼자 남아 마지막 구둣점처럼 외롭게 적혀있다. 그것이 미국이다.

흑백의 깊이있는 영상과 현악기의 선율이 영화의 환경을 더욱 쓸쓸하고 무의미하게 하모니를

이루는 가운데 신세계를 부정하게 된 그들이 내뱉는 마지막 말은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구상 어디에도 더이상 새로운 곳, 희망에 부푼 꿈을 이루어줄 곳은 아무데도 없다고 자조한다. 반미적인 방식으로 미국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이런 '이단적인 미국영화는 아마도 다시 없을 것'이라는게 뉴욕타임즈의 평이다.

짐자무쉬는 이미지의 이데올로기를 알고있는 지성파감독과 파리에 머무는 동안 파리 시네마테크에서 로베르 브레송, 오즈 야스지로, 니콜라이 레이 등의 영화에 심취하게 되었고 영화의 매혹에 빠져들면서 뉴욕대 영화과에 입학, 첫영화 '영원한 휴가'를 내는 이래 '84년 이 영화로 그해 칸영화제에서 신인감독 최고의 황금 카메라상, 르카르노영화제 그랑프리상을 수상하고 뉴욕영화계의 스타로 군림했다.

지난해 동송시네마텍 예술전용관 개관과 함께 영화팬들에게 충격을 준 이 영화는 영화관의 큰 화면과 음향이 제격이지만 비디오 필름으로라도 한번 봐두는 것이 다음 영화를 깊이있게 감상할 수 있는 값진 경험을 줄 것이다.

초대(7월14일 이주일), 변진섭 초대시 피부와 머리 색깔 등의 용모에 관련된 대화(7월16일 노영심) 등 살때기와 외모가꾸기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다. 비만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것은 틀림없지만 비만에 대한 지나치게 웃음거리로 삼는대거나 인격모독 수준의 용모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아야 될 것이다.

그의 '김동건의 텔레비안 나이트'에서 초대 손님 홍진희가 다음 초대손님 김태연과의 대화 도중 퇴장하는 실례를 범한다든가(7월12일), 모자를 쓴 채 등장하는 이주일, 이미 알려진 농담을 새로운 것인 양 소개하는 것(이문세 7월13일 시작 멘트), 거액 상품, 파다 광고 등이 지적되었다.

개선 방안

전문 MC의 육성, 그 진행자만이 할 수 있는 내용구성, 초대손님이나 시청층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를 최우선으로 꼽을 수 있다. 여성 전문 진행자, 정치나 환경 등의 묵직한 주제를 심도있게 다루는 본격 대담 프로, 성인 남성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 등도 앞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그래서 5개 프로 중 하나 정도는 국가와 민족, 인류, 개인의 보다는 미래에 대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있는 대화를 나누는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란다. 그것이 프로의 차별화나 시청율을 위

해서도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해서 참여하는 코너를 잘 살려서(예:이홍렬 쇼) 시청자가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회를 확대해 가는 것도 바람직한 포맷이라고 생각한다.

토크 쇼는 타 프로그램에 비해 제작비를 절감하면서도 시청자의 호기심을 손쉽게 채워줄 수 있고 다양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형식상 사회자와 초대손님이 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두 개의 축이 되므로 누가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는지가 항상 토크 쇼의 초점이다. 그러나 주도권은 사회자가 쥐고 있어야 한다. 사회자와 상관없이 초대손님에 따라 이야기가 재미있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한다면 토크 쇼로서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어떤 사람과 이야기 하더라도 각자 살아온 인생에서 시청자들에게 들려 주고픈 이야기는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실마리를 풀어 주는 것은 사회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자는 초대손님에 대한 사전 공부가 필수적일 것이고 대상에 따라 질문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토크 쇼는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진행자 중 쇼 전문 진행자는 이문세 한사람 정도이고 나머지는 그 분야의 전문가이라고 보기

는 어렵다. 다른 분야에서의 인기를 업고 토크 쇼의 진행자로서 발탁된 상태다. 이런 경우 그가 가진 역량을 계속 재충전하면서 실력을 다져 가게 하기보다는 쓸만큼 쓰고 다 소모되면 버리는 쪽으로 갈 확률이 크다. 이름을 내건 토크 쇼라면 이름에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이 가진 역량을 키워나가는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정리: 옥선희(본회 매스컴모니터)

▶ 여성학 지상강좌

이번 호부터 여성학 지상강좌는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과제를 중심으로 각 과제의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보육정책의 현황과 과제

남미영 (지역사회복지연구소연합회 회장)

이 글에서는 '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정부의 보육정책이 보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발전한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일면 급속히 확충된 보육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장기적 대안을 지닌 복지사업으로의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서론

'80년대 이후 기혼여성의 사회 참여가 급증하고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문제는 보편적이면서도 심각한 정도의 사회적 요구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보육에 대한 폭발적인 요구는 '90년을 전후하여 필연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그동안 민간 보육단체와 일부 여성단체가 소외되고 방치되어 온 아이들의 보육을 국가를 대신해서 담당해 왔다. 이러한 과정은 보육문제의 책임이 국가에게 있음을 제기하게 되었고 그 결과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후 몇 년간 본격적인 국가의 보육정책 실시에 의해 아동방치의 폐해가 극심한 저소득층 지역에 상당한 수의 보육시설의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그간 여성의 권리를 중심에 두었던 보육이념에서부터 이제는 보다 중요하게 아동을 중

심으로 한 보육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에까지 그 폭이 넓혀져 왔다.

'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만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다른 사회복지 부문과 비교해 볼 때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혼여성의 사회참여율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추세이고 더불어 사회적 차원에서의 육아문제 해결은 보다 지속적인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보육사업이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해 나타나는 아동의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기되었고, 또한 국가가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 진행시켰다면 앞으로 영유아보육사업의 방향은 양적인 측면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질의 문제를 어떻게 정책 속에 반영하는가에 달려 있다. 즉 보육사업에 있어서 양과 질의 두 측면은 형평성을 유지하며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며 결국 그것은 보육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아동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정부의 보육정책이 보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발전한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일면 급속히 확충된 보육정책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장기적 대안을 지닌 복지사업으로의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정부의 보육정책

1)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공약

일하는 주부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가. 현재 6천2백여개소의 보육시설을 '96년까지 3만4천개소로 증설하여 일하는 여성들이 안

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하고 공공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보육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 정부청사에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시범운영하고 교원탁아소를 설치한다.

다. 보육시설 운영비를 증액 지원하여 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라. 보육시설에 대한 기업체의 기부금을 손비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보육사업을 사회복지 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한다.

2)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여성개발부문)중 보육관련 사항

보육서비스의 확대

가. 지역보육의 확대

1.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영유아 보육시설의 신규설치: '92년까지 국민 저소득층 보육대상아동 87,000명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확충, '95년까지 저소득층 보육대상 아동을 포함한 일반 보육대상 아동까지 보육할 수 있는 시설 확충

2. 저소득층 취업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원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확대

지역보육시설의 확대전망

(단위: 개소)

연 도	'92	'93	'94	'95
신규설치 보육시설	50	100	100	100
기존시설 전 환	485	270	200	-

3.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 지역특성에 부합한 다양한 프로그램, 교구·교재 개발 보급, 지역실정에 맞는 보육료 상한선 고시, 정부지원 범위 점차 확대

나. 직장보육의 확대

1. 중소, 영세기업체 밀집지역인 공단지역에 보육시설 설치를 연차적으로 확충
2. 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사업장을 점진적으로 확대
3. 공공기관의 보육시설 설치 적극 유도
4. 직장보육시설 설치 기업체에 대하여 투자비용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

다. 가정보육의 확대: 보육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시설 확대 설치

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1. 중앙 및 지방보육위원회 설치
2. 시·군·구 단위로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

3) 세계화추진위원회 여성사회참여 확대 10대 과제 중 보육부분

민간참여를 통한 보육시설 확대 및 내실화

공동육아협동조합 설립

1. 보육아동을 둔 30~40 가구의 조합원이 출자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식의 보육시설에 건물임대비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2. '96년도 복지부 지침에 공동협동조합 설치 및 지원근거 규정을 도입
3. '96~'97년도에 시·도별로 1개소 이상의 시범사업 실시 후 평가 결과에 따라 확대방안 강구

종교시설을 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1. 종교시설의 보육시설화를 제약하는 애로 요인을 제거
3. 시설비 지원규모 상향조정: 1개소당 2,500만원→5,000만원
4. 2,100개소의 종교시설을 활용한 보육시설 확보

방과후 아동지도

가. 필요성

1. 부모취업시 아동이 방과후에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여 주부들의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되고 있다.
- 각종 안전사고 및 유해한 환경에의 노출 위험성
- 국민학생중 약 70~80만명이 3~7시간을 보호자 없이 방치

· 맞벌이 부부의 82.4%가 방과후 아동지도의 필요성 제기

2. 방과후 아동지도의 활성화는 취업모의 요구에 부응할 뿐 아니라 주부들을 활용함으로써 여성고용증진 효과도 달성

· 적은 비용으로 많은 수의 아동지도 및 보호가능

· 지역 내에서 어머니와 아동에게 통합적 서비스 제공 가능

· 양질의 아동지도 서비스 가능

· 아동지도사 보급확대로 여성의 취업기회 제공

나. 정책방향

1. 방과후 아동지도 시범시설 운영: '95. 10. 20~12. 20까지 2개월간

- 현장에서 직접 시범적용하여 도입에 필요한 사전준비 및 지원사항 파악

· 주관기관: 한국여성개발원

· 교육기간 2개월, 지도교사 2인, 하교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 필요한 설비와 지도에 사용할 프로그램 구성

2. 시범교실 운영위원회 구성

· 교장, 교감, 학교학부모대표, 방과후 지도교사, 대상아동의 학부모로 구성

· 시범교실 운영에 관련된 제반사항 건의 및 발전방향에

관해 협의

· 실시후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

하여 전국적으로 실시 유도

· 시범교실의 실시과정, 실시 효과 등을 평가하여 활성화 모색

3. 보육정책의 현황

1) 보육현황

'96년 3월말 현재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10,125개소로, 336,639명의 아동을 보육시설에서 보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92년과 비교할 때 약3년 사이에 60% 이상이 늘어난 추세이며, 특히 최근 '95년과 대비해 볼 때 시설수는 24.5%, 아동수는 24.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참조)

이렇듯 시설도 많이 확충되고 보육아동도 많이 늘어났지만, 그

(표 1) 연도별 보육시설 및 아동현황

구 분	'92	'93	'94	'95	'96 1/4
시설수	4,513	5,490	6,975	8,129	10,125
아동수	123,297	153,270	219,308	269,538	336,639

(표 2) 보육대상 아동 추계

구 분	대 상 아 동		
	1995	1996	1997
0~세 아동	3,977	3,987	4,002
취업모의 0~5세 아동	1,810	1,828	1,846
보육대상 아동	1,021	1,031	1,041

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계하고 있는 보육대상 아동수 102만명중 '96년 3월말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비율은 33%에 불과한 실정이다.

2) 보육사업 예산

보육사업의 예산을 살펴보면 <표3>에서 볼 수 있도록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보육시설의 증가 비율과 비교할 때 획기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정부의 보육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이 내실을 기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표 3) 보육사업 예산변화 현황

년 도	'94	'95	'96
총예산	1,365	2,000	2,375

3) 보육비용

보육비용은 법적으로 수혜자 부

담 원칙이어서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국공립시설과 국고보조를 받고 있는 민간법인시설의 경우 시설설치비, 운영비, 개보수비,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으며 나머지 운영비는 표준보육단가에 의해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의 경우는 전적으로 부모 부담이어서 부모의 부담이 크고 운영자의 부담 또한 가중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동별 지원의 내용은 생활보호자, 편부(모)가정의 자녀는 전액 면제, 일부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표 4>의 기준으로 국공립 보육단가의 50%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96년 복지부 지침을 보면 아동별 지원의 대상을 57,500명(법정 저소득층 10,000명, 기타 저소득층 47,500명)으로 잡고 있는데, 저소득층 아동의 지원 기준이 현실적

(표 4) '96년도 저소득층아동 보육료 지원 기준

가구원수	2인까지	3인 이하	4인 이하	5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소득	80만원까지	90만원까지	100만원까지	110만원까지

(표 5) 설립주체별 현황('96. 1/4분기 현재)

구분	계	국·공립	민 간				직장	가정
			계	개인	단체	법인		
시설수	10,125	1,048	4,745	3,623	30	1,092	91	4,241
아동수	336,639	82,170	203,322	114,859	1,275	87,188	2,741	48,406

이지 않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아동들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4) 민간보육시설지원

전체 보육시설 중 민간·가정 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89% (법인시설포함)로 전체 보육아동의 75%를 보육하여 보육사업의 상당부분을 민간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5 참조)

그러나 이렇듯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95년에 교재교구비명목으로 1억원이 편성된 것이 처음이었고 '96년도 또한 전체 보육예산 2,375억원중 민간·가정시설에 편성된 예산은 6억원에 불과하다. 이외에 연말 불용예산이 정부지원시설에 교재교구비 명목으로 별도 지원되던 것이 '93년부터 민간·가정보육시설에도 지급되고 있지만 이는 고정예산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다.

즉, 정부의 보육정책은 다양한

형태로 보육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시설에 대해서 별다른 지원의 내용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보육정책안은 단기적으로 볼 때 시설의 확충이라는 면에서는 이전에 비해 발전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기준이 비현실적인 부분이나, 앞으로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50% 이상을 차지하게 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책수립이 없다는 측면을 볼 때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이 전체적으로 공공보육의 면모를 갖추기에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5) 방과후 아동지도

방과후 아동지도의 문제는 기존 여성의 증가 비율이 높아지고 아동의 양육이 사회적 책임으로 강조되면서 영유아보육의 중요성 뿐 아니라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호, 지도의 문제를 위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자신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뿐 아니라 아동들이 방과후에도 전인적인 인격향상을 위한 장으로, 가정의 기능을 대신할 가족서비스적 내용으로 방과후 아동지도가 자리잡아야 한다.

방과후 아동지도에 관한 문제는 이미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과제로 선정된 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주관하여 '95년 10월~'96년 2월까지

4개월에 걸쳐 2곳의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시범운영을 하였고 지난 3월 7일 정무장관(제2)실 주최로 방과후 아동지도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다.

방과후 아동지도의 부분은 현재 보육시설의 확충방안과 맞물려 영아보육이나 장애아보육등 보육유형의 하나로 보면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나타나는 몇가지 문제들을 짚어 보고자 한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방과후 아동지도는 그 중요성에 비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 졸속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방과후 아동지도에 관한 의지는 세계화추진위원회 여성사회참여확대 10대 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한 것일 뿐 대선공약이나 기타 다른 여성정책이나 교육정책 속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경제정책과 맞물려 갑자기 들춰되었다는 점에서 우려점이 있다. 이는 장차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중요한 주체인 아동의 문제에 대해 정부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방과후 아동지도는 이미 저소득층 지역에서 그 요구를 받아 운영해 온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왕의 사례들에 대한 수렴내용이 전혀 없이 정책이 수립

되는 등, 관주도식의 행정을 극복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

방과후 아동지도를 담당할 부서의 문제

현재 방과후 아동지도와 관련한 법적인 근거는 현행 영유아보육법 3장 16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95년도까지만 해도 이 조항은 지방보육위원회의 결의사항으로 되어 있었고 '95년말 세계화추진위원회 여성사회참여확대 10대 과제로 선정이 된 이후 '96년 1월 1일부터 전국 보육시설의 입소대상 연령이 12세까지로 연장되었다('95. 12. 15 영유아보육법 제16조에 의거 중앙보육위원회 의결사항임).

이는 그동안 방과후 아동의 보호에 대해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었던 것과 비교할 때 미약하나마 영유아보육법상에서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에 정부에서 방과후 아동지도의 필요성을 인정함으로써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나 방과후 아동지도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 취학아동들이기에 취학전 아동의 보육문제를 제도화한 영유아보육법만으로는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만약 방과후 아동지도의 부분이 영유아보육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면 취학 후 아동들까지도 보호, 교육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방과후 아동지도는 복지적 차원, 교육적 차원, 여성의 사회활

동 참여의 차원 등 범주를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시각의 차이가 존재한다.

직장보육시설이 노동부 관할로 되면서 나타나는 비합리적인 부분처럼 방과후 아동지도의 문제도 현재는 복지부 관할로 되어 있지만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관련부처들과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방과후 아동지도의 특성상 많은 부처가 관련되어 있어 한 부처에서 담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방과후 아동지도가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간의 보다 적극적인 연구와 협조가 요구된다.

방과후 아동지도의 정책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측면에서 바라보아서는 안된다.

방과후 아동지도는 이제 그 단초가 마련되어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분히 여성의 고용증진을 위한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데 우려점이 있다.

방과후 아동보호 역시 영유아보육사업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제반문제를 해결한다는 시각으로 시작되어야 하며, 그것을 위해 보다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방과후 아동지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보육정책의 과제

〈표 6〉 보육시설확충 3개년계획

(단위: 개소)

구 분		'95	'96	'97	계('95~'97)
계		2,246	2,696	2,648	7,590
공 공 (국고보조)	소 계	1,000	1,050	1,100	3,150
	신 축	150	150	150	450
	중 개 축	75	100	125	300
	사회복지·종교·학교시설부설	775	800	825	2,400
직 장	소 계	446	446	548	1,440
	공공기관 내	76	76	88	240
	기 업	76	370	460	1,200
면 간		800	1,200	1,000	3,000

1) 보육시설 확충 계획에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96년도 복지부 지침과 관련하여 정부의 보육사업 확충에 따른 추진계획을 보면 '95년부터 '97년까지 약 1조3천억원을 투입하여 시설 7,590개소를 확충시킴으로서 아동 427천명을 추가보육하여 저소득층 자녀등 요보호대상 아동의 보육기반을 완비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97년까지 전체 아동의 60%를 목표로 하는 계획인데, '93년도 보육비를 13%와 비교한다면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정부의 추진실적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97년까지 보육기반을 완비한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훨씬 못 미치는 실적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보육율이 60%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일하고 있는 맞벌이 가정에 대한 수요충족율이 저 보육시설이 생길 경우 일하겠

다는 막대한 잠재수요에 대한 대안이 포함된 확충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시설의 확충은 계속적인 조사와 통계를 통해서 사회적인 요구를 수렴해야 할 것이다.

보육시설의 확충이 대도시 중심의 행정편의적이어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볼 때 아동들이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표 7〉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서울을 비롯한 5개 광역시의 보육시설수는 4,060개로 전체 보육시설수 8,129개의 50%를 차지한다. 즉, 수도권 지역에 전체 보육시설의 50%가 몰려있고 나머지 지역은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최근 지역별 실정을 고려하면서 전국적으로 실태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육시설의 확충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다양한 형

태로 확충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즉, 전체 보육시설의 13%에 불과한 농어촌 지역에는 작은 규모라 하더라도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등 농어촌 실정에 맞는 보육시설의 모델이 나와야 하며 0.9%뿐인 직장 보육시설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체계가 획기적인 예산 투자 계획 속에서 정부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시설확충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문제를 정리해보면 다분히 대도시 중심의 행정편의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복지부의 획일화된 지침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나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반영되는 데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에서는 지역에서 적극적인 보육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각 지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2) 보육정책이 장기적인 전망하에서 아동중심으로 그 축이 전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비용부담이 수혜자 부담원칙이어서 기본적으로 공보육적 성격보다는 사보육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보육아동의 50% 이상을 돌보게 될 민간, 가정 보육에 대해 〈표 6 참조〉 정부는 '95년에 처음으로 교재교구비를 책정

〈표 7〉 지역별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

(’96. 1/4분기 현재)

구분	시·도	시·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보육시설	계	10,125	2,296	793	530	586	308	422	2,225	331	359	330	308	307	361	805	164
	국공립	1,048	410	73	22	30	19	16	130	52	34	28	31	38	65	92	8
	민간	9,077	1,886	720	508	556	289	406	2,095	279	325	302	277	269	296	713	156
	개원	4,745	670	445	320	309	111	133	1,055	183	207	220	171	180	173	438	120
	단체	3,623	582	374	234	290	54	105	970	87	130	123	52	57	125	371	69
	법인	30	15	2	0	0	0	0	5	1	3	0	1	0	2	1	0
	직장	1,092	73	79	86	19	57	28	80	95	74	97	118	123	46	66	51
보육아동	계	91	39	6	6	7	2	8	8	1	1	3	0	0	5	4	1
	가정	4,241	1,177	259	182	240	176	265	1,032	95	117	79	106	89	118	271	35
	계	336,639	75,190	26,755	17,812	16,117	13,102	8,104	53,675	13,716	15,367	13,710	15,790	18,279	15,039	26,078	7,995
	국공립	82,170	36,739	7,178	1,457	2,694	1,553	823	8,686	3,516	2,567	1,801	2,094	2,449	3,941	6,226	446
	민간	254,469	38,451	19,577	16,355	13,423	11,549	7,281	44,989	10,200	12,800	11,909	13,696	15,830	11,098	19,852	7,549
	개원	114,859	17,271	10,480	7,337	8,600	3,987	1,993	27,798	2,752	5,271	3,620	2,980	3,515	4,902	12,129	2,224
	단체	127	668	101	0	0	0	0	220	75	88	0	17	0	88	18	0
	법인	87,188	5,360	6,182	7,016	1,749	5,388	2,367	5,485	6,339	5,906	7,261	9,280	11,347	4,382	4,424	4,703
	직장	2,741	938	91	72	275	59	347	350	13	131	71	0	0	204	95	95
	가정	48,406	14,214	2,724	1,930	2,799	2,115	2,484	11,136	1,021	1,404	957	1,419	968	1,522	3,186	527

하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려가겠다고는 하나 장차 이 시설들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자율화하여 시장 원리에 입각한 사보육의 위치로 규정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보육정책의 방향이 다분히 시설 중심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동을 중심에 놓고 사고한다면 동일한 아동이 어느 시설을 이용하든지 동일한 서비스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는 아동지원에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고 민간 시설의 운영비를 상대적으로 높이는 결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육의 질을 낙후시키는 결과이다.

아동중심의 보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육사업을 바라보는 인식의 문제이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이 사적 서비스의 내용을 인정하면서 단기적인 확충을 통해 보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대변하려 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투자는 국가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민간 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예상하고 있는 실정에서 민간보육을 시장원리에 맡겨 버리려는 것은 국가의 무책임한 방치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국가는 일정한 조건을 정하여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많은 민간 시설들이 준공공적 영역의 보육을 담

당하도록 장려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이제는 보육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내실을 기할 때이다.

우리나라 보육사업은 단기적인 양적 확충에 그 핵심이 있는데, 확충 이후의 장기적인 계획속에서 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또한 매우 제한적이다.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안에서는 공동육아 협동조합 설립과 종교단체시설 활용방안을 통해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방안은 민간보육 시설에

부모가 참여하는 새로운 육아형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운영방식에 있어서 공동출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협동조합식 보육시설이 현재 민간보육 시설을 대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는 그 한계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민간의 참여를 통해 보육시설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공동육아 협동조합이라는 특정한 부문이나 종교단체를 통한 단기적인 시설확충 지원계획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민간보육시설의 기능이 사보육의 차원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공공성을 견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동중심의 관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보육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민간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보육위원회 구성에 투명성을 보장하고 전문인으로 원장이나 행정집행자 뿐 아니라 교사들을 참여시켜 현장감있는 내용들이 서로 토론되고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보육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인 교사들의 노동 조건과 권익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사들이 보육현장을 단순히 생계유지를 위한 직장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들의 보육을 책임지고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발전에 일조한다는 신념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96년도 복지부 지침은 국공립 시설의 교

사위주로 개편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는 많은 민간 시설에서 보육사업에 임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열악한 조건을 스스로 감수할 수 밖에 없도록 방치하는 처사이며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할 교사들이 소신을 가지면서도 현장을 떠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5. 결론

영유아의 보육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은 살펴본 바와 같이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에 그 핵심이 있다. 그러나 양적 확충의 문제만 보더라도 '97년까지 완비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 더 중요한 문제는 숫자만 늘려나간다고 해서 보육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보육정책의 방향이 공공성을 견지하면서 동시에 재정 확보의 의지가 있는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또한 보육사업은 공히 아동중심의 관점이 견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아직까지 시설중심과 대도시 중심의 행정편의적인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각의 전환이 요구되며, 그것은 보육의 질 문제를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의지로 나타나야 한다.

더불어 농촌보육시설이나 직장 보육시설의 확충과 지원의 문제도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만 하는 과제로 남아있으며 민간시설의 운영문제와 교사들의 질적인 처우문제에 대해서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방과후 아동지도는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고 제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가정의 기능을 사회적으로 담보하는 가족서비스적 측면의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유아의 보육, 방과후 아동지도 등 보육정책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아동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제반 사안들에 대해 국가가 그 책임을 인식해야 하고, 둘째, 근본적으로 수혜자부담으로 되어있는 경비와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국가예산에서 그 재원이 조달되어야 하며 셋째, 정책집행과정이나 운영에 있어서 부모나 교사, 지역사회 등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질적인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아동의 관점이 부재한 지금, 정부가 진정으로 아동과 관련된 문제들을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정책기조의 핵심은 아동에게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물절약형

수도꼭지



문화수준향상으로 홈 오토메이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주거환경 질적 개선과 함께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시작으로 수도꼭지의 자동화에 일대변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국내에서도 물자원에 대한 심각성으로 가정, 공공시설, 공장, 병원 등으로부터 절수형 자동수도꼭지가 절실히 부각되고 있다.

이에 환경마크협회로부터 인증을 받는 등 정부가 인정하는 각종 인증마크를 획득한 물절약형 수도꼭지는 생활의 편리함과 절약, 성능 및 디자인이 우수한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으며 환경, 위생에 대한 인식 변화로 날로 그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물절약형 수도꼭지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절수효과: 수도물이 50% 이상 절약되므로 가계비 절감은 물론 생활용수 제조비와 하수처리비용이 절감된다.
2. 편리성: 적외선 센서감지기능에 의해 손을 가까이 하면 저절로 물이 나오고 멈추므로 편리하다.
3. 위생적: 음식물이나 오물이 묻은 손으로 직접 수도꼭지를 만질 필요가 없으므로 세균 감염 우려로부터 해방된다.
4. 세련된 디자인: GD(우수디자인)마크 수상이 증명하듯 세련된 디자인으로 주거환경의 품위를 높여준다.
5. 설치간편: 기존 수도꼭지를 탈착하고 10분이면 설치 가능하다.
6. 구조: 기존제품에 사용되는 SOLENOID VALVE와 달리 모터구동 PISTON VALVE를 개발, 성능과 내구성에서 월등하며 물충격현상을 완화하였다.

자료제공: (주) 진흥전자 (02) 588-3272

여 · 성 · 계 · 동 · 향

여성유권자연맹, 의정지기단 모집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서울지부는 의정을 지키는 여성유권자의 모임 활동을 올 하반기 중점사업으로 삼고, 뜻있는 여성단원들을 모집하고 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역문제를 지역사람들이 해결해 나가자는 뜻에서 구성되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의 의정지기 모임은 8월 21일, 28일 두차례 신입단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마련한다.

성폭력예방교재 추가배포

성폭력범죄가 부쩍 늘고있는 가운데 정부제2차 관설이 지난해 2만부 발간한 「성폭력예방및 피해 신고안내」 책자가 올해 1만부 추가인쇄돼 교원연수기관 및 15개 시, 도 행정기관 등에 배포됐다.

이 책자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실상과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94년 4월부터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폭력특별법)의 내용도 담고 있다.

책자에 실린 성폭력의 실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성폭력의 대상이 연령에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생후 6개월된 어린아이부터 60세 노인까지 피해자가 되고있다. ▲ 대개 폭력배가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범죄라고 여기기 쉬우나, 성폭력의 73%가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다. 친인척, 이웃, 선배, 직장동료 등 아는 사람들이 성폭력 가해자가 되기 일쑤며 대부분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영위하는 이들로 나타났다. ▲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이나 행동이 강간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 성폭력의 원인을 여성에서 전가하려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다. ▲ 여성이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목숨을 위협하는 범인앞에서 끝까지 저항하 기란 말처럼 쉽지않기 때문이다.

여중생 성인식조사

여중생 10명중 5명꼴로 자신의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 헌신만 하여 인정은 받지 못하고 있거나 가족때문에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눌러지 내다고 생각하고 있다.

최근 한국여성의전화가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여중 1, 2년생 47명을 대상으로 개최한 「딸들을 위한 캠프」에서 참가자들에게 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캠프참가자들은 주로 수도권에 살고 있었으며 이들의 어머니중 51.1%가 취업여성이었다. 이 여 중생들은 「성」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에 대해서는 어른스러움(17%), 신성함(8.5%)라는 긍정적인 느낌보다 무조건 싫음(17%), 부끄러움(25.4%), 성 추행·성폭행 등 성폭력(17%), 징그러움(12.8%) 등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에 대한 지식도는 어느 정도 안다(55.3%)거나 잘 안다(4.3%)는 응답이 절반이상이었고 잘 모르 겠다(46.8%)는 비율도 적지 않았다. 성, 임신·출산, 월경, 동정, 성관계 등 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70.2%가 있다고 답했고 14.9%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성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들어본 시기는 초등학교 5~6학년(49%)때가 가장 많았다.

성폭력이란 말에 대해서는 100%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앞서 성에 대해 성폭력을 연상한 다는 비율이 17%였던 것과 연관이 있었다.

한편 성역할과 관련, 어머니에 대한 생각(중복응답)을 표현해 보라는 질문에 훌륭하고 소중한 존재 (68.1%)라거나 자랑스럽고(29.8%) 존경스럽다 (23.4%)는 응답이 많았다. 대체로 어머니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어머니들이 누리는 지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와 긍정적인 평가가 엇비슷했다. 적당한 역할과 지위를 누리고 있다(53.2%)는 평가도 있었지만

가족을 위해 헌신만 하면 인정은 별로 못받는다(8.5%)거나 가족때문에 개인적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묻혀산다(29.8%)는 평가도 적잖았다.

집안에서 자신이 딸로서 역할과 지위에 대해서는 사랑받으며 아들과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63.8%)는 답이 많았으나 딸이라고 나만 집안일 도움 것을 강요받는다(12.8%)거나 남자형제와 모든 면에서 차별받는다(4.7%)는 여학생들이 상당수 있었다.

남성으로부터 불쾌한 신체접촉이나 야한 말, 눈짓 등을 듣거나 보고 불쾌했던 경험이 있는냐는 질문에는 31.9%가 「있다」고 응답했다.

북한어린이에게 분유보내기

대한YWCA연합회는 북한어린이에게 분유보내기 운동을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달간 펼쳤다.

「어머니의 마음을 북한의 어린이에게」라는 구호로 분유 1만kg을 목표로 모금운동을 벌인 것이다. YWCA회원들을 중심으로 분유값(1kg에 3천원)을 모아 북한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는 분유를 사보내기 위한 이 운동은 서울YWCA연합회와 전국 51개 YWCA지부에서 진행됐다.

김윤덕 전 한국여성개발원장, 신임 정무제2장관에 취임

신임 정무제2장관에 취임한 김윤덕 장관은 8월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의 계획과 여성정책에 대한 생각을 털어 놓았다.

“여성들을 동떨어진 일에 몰아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궁극적으로는 여성문제를 다루는 정부부처가 따로 필요하지 않은 때가 와야지요. 정부부처만해도 여성들이 통상, 외무, 경제 등 각부처에 고루 포진한다면 여성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될텐데

요.”

김윤덕 신임 정무제2장관(60)은 사건을 전제로 “성차별문제는 여성들이 남성사회에 들어가 풀어야 한다고 믿기때문에 여성부 신설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여성권익을 위해 굳이 여성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믿음이다.

김장관은 그러나 “여성계의 입장이 대체로 여성부 신설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여성계와 불필요한 의견충돌은 빚고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장관은 8월이 가기전 여성계 인사들과 만나되 걸치레가 아닌,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재임중에는 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발전 10대과제 등 지금껏 갖춰진 법과 제도를 현장에서 차근차근 실천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사문화되는 법이 많기에 알차게 법제도를 꾸려가는 일도 법만드는 일만큼 중요하다는 뜻에서다.

그런 한편 여성들이 어느 정도 권리향상을 이룬 만큼 얻은 힘을 건강한 소비생활, 환경보호등 사회문제에 나눠 쓰도록 정무제2장관실 업무의 폭도 그 쪽으로 넓혀겠다고 밝혔다.

딸들, 아들 하나를 둔 25세때 집 근처 성균관대 법대에 합격한 당찬 이력을 갖고있다. 8, 9, 10대 국회의원으로 '89년부터 3년간 한국여성개발원장으로 일했었다. 전남 진안 출신으로 사업가 유흥근씨와의 사이에 5녀1남을 두었다.

'92년 한국여성지도자협의회장을 맡았으며 '93년에는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총재로 '93년부터 '96년까지는 신한국당 당무위원으로 일해왔다.

김장관은 아들 낳으려고 딸을 다섯이나 낳았느냐는 질문을 단골로 받는다며 “둘째가 아들인데 그럴 리가 있겠느냐”는 말로 「의혹」을 깨뜨려 주곤 한다고 남들이 1남5녀라고 하면 기어이 5녀1남이라고 바꿔 말하기도 한다.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절약수기공모

에너지관리공단이 최근 주최한 제18회 에너지절약수기공모에서 「억척주부」 이은희씨(33·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115)가 대상을 차지했다.

이은희씨는 '87년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 내집을 마련할 때까지 고생한 이야기에 걸들여 전기·수돗물을 어떻게 아껴쓰는지를 소상히 밝히고 있다.

현재 5가구의 세입자를 둔 집주인이 됐지만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 전기 1kwh, 물 한바가지도 함부로 쓸 수 없다는 이씨는 매달 주부모임을 갖고 에너지절약을 외치고 있다.

이씨의 수기중 에너지를 절약하는 알뜰살림작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전기아끼기〉

일없이 전기코드를 꽂아두지않도록 특수 콘센트를 쓴다.

콘센트에 스위치가 달려있는 제품이 있다. 콘센트 스위치만 끄면 자동으로 전기가 차단되는 콘센트를 구매 쓰고있다.

TV·오디오·비디오를 쓰지않을 때는 콘센트의 스위치를 내려둔다. 전기도 절전형 제품을 쓴다.

TV는 아침신문을 보고 프로그램을 끌어서 그것만 본다. 냉장고의 냉장효과를 높이기위해 냉장실을 꽉 채우지않고 여유있게 넣는다. 냉장고가 클 필요가 없다. 그때그때 장을 보기때문에 냉장고 용량은 작은 것으로 해서 신선한 식품을 찬거리로 쓴다.

〈물아끼기〉

세탁기는 수동식으로 빨래를 모아 예벌빨래를 한 뒤 작동한다.

샤워횟수가 잦은 여름엔 욕조 배수구를 잠근 채 샤워를 한다. 샤워물이 모이면 예벌빨래나 마당청소에 요긴하게 쓸 수 있다.

빗물도 재활용한다. 비오는 날 물받이밑에 물통을 받쳐두고 물을 받아 물청소를 하거나 화분에 준다.

〈가스아끼기〉

요리할 때 가스를 처음부터 강하게 틀면 가스가 많이 소모된다. 처음에 불꽃을 작게해서 서서히 높이는 것이 좋다. 가스열효율이 높아지도록 가끔 버너를 청소해준다.

이구경 (경향신문 기자)

표지의 말



접 목

조문자 작

조문자씨는 1940년 경기도 송탄에서 태어나 1963년 홍익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1995년 조선회랑에서의 개인전까지 10회의 개인전과 1983년 '83 현대미술초대전, '88년 조선일보사 미술관 개관 기념초대전, '90년 예술의전당 개관 기념전, '90년 한국여성미술가 55인전, '91년 Art Fair(조선회랑초대), '93년 제8회 인도 트리엔날, '95년 600주년기념 서울 국제현대미술제와 서울 미술대전, 제10회 '95회랑 미술제 「화상 10년의 눈」, 1995년 한국여성미술제, 한국미술 50인 초대전(Paris, 유네스코 회관) 등의 국내외 다수의 초대전 및 단체전을 가졌다.

또한 1991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1992년 부산일보 미술대전 심사위원 및 1993년 MBC 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지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2-82
전화 : 924-7563

제33회 전국여성대회 준비 박차

10월 12일(토)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33회 전국여성대회를 앞두고 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7월 이사회에서 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프로그램 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제를 "정보사회와 여성"으로 정하고 연사 선정을 끝내었다. 또한 용신봉사상과 올해의 여성상 후보 추천 공문을 각계에 보내고 후보를 추천 받고 있다.

안기부 성차별 직원채용에 대한 건의문 송부

본회는 지난 7월 23일 국가안전기획부가 각 일간지에 게재한 '국가안전 기획부의 특정직 7급 직원 채용 공고'(총무처공고 제 1996-31호)에 대해 응시자격을 '67년 1월 1일 이후 출생, 병역을 필한 자, 신장 165cm 이상 등으로 한정된 것과 관련, 이는 사실상

여성의 응시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7월 24일 이같은 안기부의 남녀차별 모집·채용공고 시정을 요청한 건의문을 안기부를 비롯한 총무처, 노동부, 정부 제2장관실, 청와대 비서실과 각 언론사에 송부했다.

최근 정부가 여성발전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공기업 신규채용시 여성고용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안기부의 이같은 직원채용 공고는 정부의 정책과도 어긋나며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에 제한을 두는 처사라 보고 본회는 이에 대한 수정공고 게재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수재의연 성금 전달

본회는 극심한 수해 피해를 본 경기북부지역과 강원도지역의 북

구작업을 돕고 있는 강원도 여협과 경기도 연천 여협에 성금을 보내어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였다.

동정란

본회 박영혜 부회장, 정부 제2장관 표창

본회 박영혜 부회장은 지난 7월 3일 제1회 여성주간기념 전국대회에서 여성지위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 제2장관 표창을 받았다.

강경화 국제관계위원, 국회의장 국제비서관으로 자리올려

본회 강경화 국제관계위원은 세종대 교수에서 국회의장 비서실 국제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96년 제4회 조리기능사 시험원서 접수대행 안내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부설 한국조리직업전문학교에서는 오는 9월 22일에 실시되는 '96년 제4회 조리기능사 시험(1차, 필기시험)에 응시코자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응시원서 접수를 대행한다.

9월 2일~3일, 양일간 접수대행하며 응시자 준비물은 반명함판 사진 2매, 응시료 4,400원과 응시원서(우리학교에 비치되어 있음)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조리직업전문학교는 조리기능사를 양성하는 전문기관으로 한식, 양식전문 3개월 과정이 있으며 또한 조리사 구직·구인 및 개업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많은 활용을 바란다.

▲ 한국조리직업전문학교 : 전화(02)833-1623~4

닭고기 요리교실 실시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에서는 한국계육협회 후원으로 식생활 및 영양계몽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7월 1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급식관련 영양사, 조리



사, 일반주부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닭고기 요리교실을 개최하였다.

이날 요리교실에서는 닭고기에 대한 영양강의(한국계육협회 남두희 상무) 및 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준 부회장으로부터 닭살 마요네즈볶음, 닭잡채, 양념통닭에 대한 조리시범 후 참석자들의 조리실습과 시식이 있었다.

안승준 부회장은 조리시범시 "닭고기는 우수한 단백질 식품으로 맛이 좋고 소화가 잘되기 때문에 아동급식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식품"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부

소비자 교육 실시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부에서는 지난 7월 26일 오전 11시부터 「건전한 소비생활」에 관한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바람직한 여성의 소비경제'라는 제목아래 전성자 한국소비자교육원 원장은 남에게 과시하려는 전시소비에 급급하여 과소비 경향으로 흐르는 요즘 소비문화에 대한 분석과 소비자로서 여성들이

우 · 리 · 들 · 의 · 광 · 장

이루어나가야 할 올바른 소비문화에 대해 강의하였다. 이어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부 현순덕 회장은 '우리는 어떻게 생활의 절을 찾아야 하나?'라는 강의를 통해 한정된 지구 자원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생활의 주체인 우리 여성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절약하며, 올바른 소비를 왜 해야하는지를 언급했다.

건전한 사회는 우리 여성들의 손에 달려있음을 철저히 인식하고 일상생활속에서 올바른 소비문화를 이루도록 계획적, 합리적, 도덕적 소비를 해 나가자고 다짐하면서 교육을 마쳤다.

한국퇴역여군회

창립 4주년 기념식



한국퇴역여군회는 창립 4주년을 맞아 7월 25일 육군회관 무궁화 홀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김장숙 정무 제2장관과 이연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의 다수의 여성계 인사와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김장숙 정무제2장관의 격려사와 이연숙 여협 회장의 축사, 그리고 퇴역여군회 발전에 기여한 이명자 사무처장, 정복연 이사, 김중심 회원에 대한

공로패 증정이 있었다.

또한 대통령 영부인 손명순 여사의 축전에 이어 이양호 국방부장관, 권영자 국회의원특위위원장, 정회경 국회의원, 신낙균 국회의원, 장태완 재향군인회장, 이외에도 많은 축전과 화환이 담겨있었다.

기념식에 이어서 전성자 소비자교육원장이 "바람직한 소비문화와 가정생활"이란 주제의 특강을 하였고 퇴역여군회 정영숙 회장은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바람직한 소비생활에 앞장서는 한편 공동체의식운동에 동참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한 후 서울역 광장에서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해 부채전단을 배부하며 캠페인을 하였다.

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

하계수련대회 가져

한국여성불교연합회에서는 인간성 상실과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인간존엄의 참의미를 갖는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제1차 하계수련대회를 각지부별로 개최했다.

경북 상주 남장사에서 중앙임원 30여명이 참석한 수련회에서 지도법사 이성웅스님(남장사 주지)은 불교윤리를 바탕으로 한 생활법문을 강연하였다.

지도법사 스님은 "가장 행복한 삶은 지혜롭게 사는 삶이며, 바른 견해와 바른 사고, 지혜는 현상을 올바르게 판단하게 한다"며 "이러한 마음에서 중요한 것은 편견과 독선을 버리는 것이다"라고 역설하며 "결국 수행은 마음을 바로 잡는 일이며 수행하는 사람은 부모에 효성하고 의리를 귀히 여기며, 예도법절에 화복하고 인욕(보시)을 생활화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며 여성지도자로서 충실히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 · 리 · 들 · 의 · 광 · 장

여성문제연구회

'수재의연금' 성금 전달

여성문제연구회에서는 지난 7월 26일과 27일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지역에 내린 집중 폭우로 인해 연천, 파주, 문산 등 11개 시·군이 침수되고,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불의의 집중 호우로 피해가 컸던 이 지역에 재난을 당하고 실의에 빠진 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기 위해 여성문제연구회 윤용숙 회장과 이사 일동은 지난 7월 30일 KBS 총무부를 통해 일백만원의 성금을 전달하였다.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홍수피해지역 자원봉사활동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은 지난 7월 29일 홍수피해지역인 연천에서 회원 70여명이 수해복구 지원활동으로 노력봉사 및 물품지원을 하였다.

이날 지원활동으로는 피해가구에 2, 3명씩 짝을 지어 가재도구를 닦고 빨래를 하는 등의 노력봉사를 하였고 현웃 100상자, 라면 100상자, 고무장갑 100켤레, 물통 100개 등 생활용품들을 준비하여 어려움에 처한 수재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

또한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박정자 회장은 노력지원 봉사활동을 8월 10일까지 계속하였으며 수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모금운동도 벌였다.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 진행

여성문제연구회에서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문제연구>를 위해 지난 6월에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설문조사를 토대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고 지난 7월부터 본격적인 설문조사를 시작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60세에서 70세 사이의 노인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8월 중순에 설문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대한영양사회

전국영양사학술대회 개최

대한영양사회는 지난 7월 22일, 23일 양일간 서울 호텔롯데월드에서 「전국영양사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학교 급식 발전을 위한

우 · 리 · 들 · 의 · 광 · 장



세미나'와 '보건환경 세미나' 및 '분과별 학술대회' 외에 '식품기기전시회'가 마련되었다.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와 공동으로 마련된 첫 날의 '학교 급식 발전을 위한 세미나'는 초·중·고등학교장, 교육부·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및 영양사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고등학교 급식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 일본의 중·고등학교의 급식 운영 현황(増田和雄, 일본 전국급식연합회 사무국장) ▲ 일본에서의 학교 급식의 현황과 과제(鈴木久乃, 일본 여자영양대학 교수)에 관한 특강과 ▲ 중·고등학교의 학교 급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원표, 대한영양사회 부회장) ▲ 학교급식 질 확보를 위한 다양한 급식 운영 형태 개발 및 적용 방안(박영숙, 순천향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에 대한 주제 발표가 뒤따라 중·고등학교의 효율적인 급식 운영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음날 이어진 '보건환경세미나'는 '단체 급식,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는 주제로 영양사 및 관련 단체 관계자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영양학회와 공동으로 개최되었는데, 날로 심각해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실천 방안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정책(송재성,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국장)에

대한 기초 강연과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한 급식 계획 및 관리 방안(김정령, 인제대학교 부속 상계백병원 영양과장) ▲ 낭비적인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방안(윤진숙, 계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에 관한 주제 발표 및 남기는 음식 제로화 운동에 대한 사례 발표가 뒤따라 회원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한편 이날 오후에 진행된 병원 및 사업체의 분과별 학술대회와 2일간 진행된 POSTER SESSION은 영양사들이 실무 경험을 통해 연구·조사한 내용을 발표하는 장으로서 연구하는 영양사상을 정립하고 그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아울러 2일간 진행된 식품기기 전시회를 통해서도 영양사 및 관계자들에게 최신 식품과 기기 관련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바람직한 영양·급식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다.

대한간호협회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예선열려

대한간호협회는 제2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예선을 지난 7월 30일 오전 10시부터 타워호텔



우 · 리 · 들 · 의 · 광 · 장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하여 본선대회에 진출할 20명의 모유수유아를 선발했다. 보건복지부와 존슨즈베이비 페나텐이 후원하는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예선에는 참가신청을 마친 5~7개월 사이의 아기 2백 35명중 서류심사를 거쳐 선발된 5개월 아기 34명, 6개월 33명, 7개월 33명 등 1백명의 아기가 참가했으며, 신체검진과 월령별 심사위원 개별면담 등으로 예선심사가 진행됐다. 이날 선발된 20명의 아기는 남자아기 13명, 여자아기가 7명이며, 월령별로는 5개월 6명, 6개월 7명, 7개월 7명이다.

예선대회 심사위원으로는 손근찬 심사위원장(단국대 의대 교수)을 비롯하여 박재옥 교수(순천향의대), 이근 교수(이화여대 의대) 등 소아과 전문의와 함께 김수지 이화여대 간호과학대학 교수(간협 섭외홍보위원장), 김혜숙 국제수유전문간호사(간협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그리고 예선대회참가 아기 전원에게는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참가증서가 주어졌으며, 후원사인 존슨즈베이비 페나텐에서도 기념품을 제공했다.

한편, 예선대회에서 선발된 20명의 모유수유아를 대상으로 한 본선대회는 8월 6일 오후 1시30분부터 타워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려 최우수 건강아와 우수건강아 등을 선발하게 된다.

천도교여성회본부

제2차 전국지부회장회의 및 단기수련

천도교여성회본부는 지난 7월 24일~26일 우이동 의창수도원에서 제2차 전국지부회장회의 및 단기수련을 가졌다.

이순종 총무부장의 집례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30개지부에서 6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수인사, 청수봉전, 심고, 주문3회 병송, 사계명 강령 낭독 및 안전토의가 있었다.

또한 한태원 수도원장의 지도로 진행된 단기수련은 김재중 교령, 이태근 총무원장, 정상규 연원회부의장, 한태원 수도원장의 특강과 수련연성 시간 등을 가지며 성황리에 마쳤다.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주부백일장 개최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경상북도가 후원한 경북 100주년과 제1회 여성주간 기념 「주부백일장」은 지난 7월 2일 안동대학교에서 이외근 경상북도 도지사를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장과 주부 및 여성단체회장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경북 100주년과 제1회 여성주년을 기념하고, 주부들에게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므로 자아실현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열린 이번 주부백일장의 참가자격은 문협에 등단된 주부를 제외하고는 도내 거주하는 주부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어 23개 시군에서 300여명의 주부들이 대거

우 · 리 · 들 · 의 · 광 · 장

참가했다.

김혜순 경상북도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대회사
를 통해 경북 100주년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여
성주간에 주부백일장을 개최하게 되어 더욱 보람
된다고 기뻐하며 주부들이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
하여 외면의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길러
더욱 행복한 가정과 명랑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을
 당부했다.

이외근 경상북도 도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여성이 가정에서 안주하는 시대는 지났으며 문화적 재능과 소질을 잘 갖고 닦아서 향토문화사에 빛나는 여류 작가가 많이 배출되기를 바란다면서 건전한 가정, 건전한 사회를 이루는 주역이 바로 여성들이므로 책임과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날 수상은 장원, 차상에는 경상북도 도지사상으로 시부문 장원에는 노연화씨가 산문부문 장원에는 김선미씨가 수상을 했으며 그의 차하, 참방상은 경상북도 여성단체협의회회장상으로 모두 30여명의 주부들이 수상을 했다.

이날 행사에 이벤트 행사로 “향토시 낭송회”가 있었는데 10여명의 주부들이 온온한 단소의 음률에 맞추어 시낭송을 했으며 행사종료후 참가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 리셉션이 있었다.

본회를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후원금 •

명미순	20,000원
축협중앙회 화양동지점	20,000원
정희선	20,000원
이정순	10,000원
황경숙	10,000원
이경자 (한국노총서울시지역본부 복지국장)	10,000원
서동순	10,000원
최준신	10,000원
축협중앙회 을지로지점	10,000원
축협중앙회 신도봉지점	10,000원
축협중앙회 면목동지점	10,000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경희자주래	은영정애금	서희이박김	장장장장장	원원원원원	위위위구총	보계성호연	공관여보무	판제로지사	출국근소비사	식숙한애숙자덕	오은옥경영영수	이양김정김현	사사사사장장장	이이원원원	이이리구위	개계관연전	회회감감조기재	오숙혜심기준자	경연영연욱회의	김이박정이최강	장장장장장사사	회회이이	예예회회	명회부부부서서
-------	-------	-------	-------	-------	-------	-------	-------	-------	--------	---------	---------	--------	---------	-------	-------	-------	---------	---------	---------	---------	---------	------	------	---------

회원 단체

회 원 단 체 명	회	장	주 소	전 화
대한간호협회	최영희	회	중구 성림동 88-7	279-3618
대한기독교여성자살재회연합회	여귀옥	회	용산구 동자동 35-26	754-1707
한국어학사협회	김영자	회	도봉구 성문동 423-44	993-2378
대한조선협회	안선아	회	중구 장충동 1가 35-5	279-1972
여성문제연구회	윤용숙	회	용산구 한남동 738-20 화성빌딩 302호	797-9185
중앙부인회	김취복	회	성북구 보문동 2가 7	928-2107
가톨릭여성연합회	박애주	회	중구 망동 1가 1번지 가톨릭회관 5층	778-7543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이정자	회	마포구 마포동 136-1 한신오피스텔 1804호	704-2284
한국부녀복지연합회	엄노미	회	마포구 도화동 173번지 삼창프라자빌딩 508호	712-0713
한국여성항공협회	김경오	회	영등포구 여의도동 61-3 라이프오피스텔 1007호	786-1216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하종순	회	서초구 방배동 925-5	585-3351
한국우먼스클럽	김인숙	회	성북구 보문동 2가 56-12	924-5923
한국여성문화생활회	은방희	회	서대문구 홍은동 265-90	394-2112
국제존타한국연합회	정순자	회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76-5 신광중학교	(062)528-6444
한국여성크리스찬클럽	최옥자	회	종로구 평창동 537-9	379-1872
대한약사회여약사회	곽순덕	회	서초구 서초동 1489-3 약사회관	581-1201
우리웃음협회	이윤정	회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53-9 남목치과 1층	(042)252-7033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왕준련	회	영등포구 신길1동 115-14	833-1623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부	현순덕	회	강남구 신사동 585-11 삼야빌딩 501호	549-5161
대한여성양사회	서문경	회	영등포구 신길7동 1351-3 천복빌딩 603호	842-2466
국제여성성공연합회	문수자	회	용산구 한강로 3가 63-1	796-5333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김숙향	회	마포구 노고산동 54-18	332-0914
한국통일여성협의회	고기효	회	동대문구 전농4동 582-5	244-5208
한국퇴역여군회	정영숙	회	성동구 용답동 236-10 심호오피스텔 412호	214-2990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박정자	회	종로구 견지동 111-1	738-1250
한국자수문화협의회	남성민	회	종로구 안국동 148번지 해영회관 807호	736-5350
한·일여성친선협회	박성자	회	중구 묵정동 18 대학문화원 306호	273-7645
한·중여성교류협회	하영애	회	광진구 화양동 48-3 용진빌딩 3층	463-2445
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윤송자	회	서대문구 연희동 137-10 영원빌딩 4층	3141-7840
한국어류시각디자인협회	나성숙	회	강남구 논현동 192-6 범한빌딩 3층	545-6789
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	김묘주	회	종로구 견지동 39-1 상운중심 2층 1호	738-5586
천도교여성회본부	천보경	회	종로구 경운동 88번지	732-6867
한국여성정보인협회	이기호	회	강서구 동촌동 645-11	3662-9417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오세화	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동 100 한국과학연구소	(042)860-7663
한국생활공예협회	임기선	회	용산구 원효로 1가 116-2 지산빌딩 3층	703-0168
원자력올이해하는여성모임	신영순	회	마포구 도화 2동 536 정우빌딩 304호	714-7451

협동회원단체

협동회원단체명	회장	주소	전화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김기숙	인천광역시 중구 신성동 2-42 신포동 동사무소 3층	032-763-8354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은종인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664-55 전북여성청관 3층	0652-76-9675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김선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9 경기도여성청관	0331-39-8813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김은숙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 2동 484-21 여성회관 2층	042-532-1610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윤병길	춘천시 효자 2동 33 호자종합사회복지관 내	0361-262-1306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라정복	충북 청주시 상당구 복문로 2가 116	0431-55-7222

편집 후기

찌는 듯한 폭염의 더위는 생활의 의욕을 모두 빼앗아가는 듯 하다. 특히, 밤마다 잠 못 이루게 하는 '더위와의 전쟁'을 한차례 선포하게 하는데, 이런 더위만큼 치루어야 할 것은 최근 우리 모두에게 경악을 주었던 성폭력이 아닐까 싶다. 성폭력없는 사회를 위한 사회적 차원의 관심과 대책마련을 기대한다.

明.

월간여성 · 1996년8월호 통권343호
(매월 10일 발행)

• 발행: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발행인: 이연숙

편집인: 김금래

인쇄처: 코리아 헤럴드

사식·편집: 한라기획

발행날짜: 1996년8월10일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427

☎ 794-4560, 794-4450~1, 794-4766~7,

FAX: 796-4995

• 편집: 출판공보위원회

위원장: 서은경

위 원: 김효자/나미례/문현경/박금옥/배동순/신동식/이경자/홍정희

담당: 이선명



「여성」구독안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계 의견 수렴을 통한 여성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비롯한 회원단체의 사업소개 및 국내외의 여성계 동향, 전반적인 사회문제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여성」의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본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794-4560

전기의 편리함은 안전한 전기사용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 어린이·주부 글짓기 공모

바로 쓰면 좋은 전기, 방심하면 전기 재해

1. 작품공모

■용모대상: 전국 초·중·고·대 학생·가정주부

■작품내용: 전기는 사용상 그 위험성을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전기로 인한 사고와 화재등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체험이나 기타 신문등 재해예방 및 전기안전 생활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

■원고분량: 초·중·고·대 200자 원고지 7매 내외

주 부 —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접수기간: '96. 7. 15 ~ 10. 5

■접 수 처: 우편번호 134-070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46-2
전기안전공사 홍보실 전기안전 어린이·주부 글짓기 담당자 앞
(마감일 소인 육표)

■문의전화: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440-2275) 및 지사

2. 발표 및 기타

■발 표: '96. 10. 22 (화) 중앙일보, 소년한국일보 및 본사 게시판

■용모요령: -성명, 집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할 것
어린이는 학교명, 학교 주소, 학년, 반을 더 기재할 것
-용모작은 결본과 작품머리에 전기안전 어린이 또는 주부 글짓기 용모작임을 기록할 것

■기타사항: -입상작은 공사의 사보에 게재되며 작품집으로 발간하여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릴 것
-간행물등에 발표되지 않은 창작품이어야 함
-용모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작에 대한 판권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있음

3. 시상내용

구분	인원	시상구분	시상내역	상금
어린이	대상	1	통상산업부 장관상	상패 및 장학금 50만원
	금상	1	한국방송공사 사장상	상패 및 장학금 40만원
	은상	2	소년한국일보 사장상	상패 및 장학금 30만원
	동상	3	이사장상	상패 및 장학금 10만원
	입선	100	이사장상	상장 및 도서 -
주부	대상	1	통상산업부 장관상	상패 및 상금 200만원
	금상	1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상	상패 및 상금 100만원
	은상	1	중앙일보 사장상	상패 및 상금 50만원
	동상	1	이사장상	상패 및 상금 30만원
	입선	20	이사장상	상패 및 상금 10만원

주 최: 한국전기안전공사

주 원: 통상산업부, 한국방송공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중앙일보사, 소년한국일보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및 지사

본사: 02-440-2114 / 통부: 02-440-8181~9 / 북부: 02-999-7387~9 / 중부: 02-779-1613~5 / 영남: 02-679-3741~4 / 전남: 02-567-9832~4 / 인천: 032-439-6505~7 / 경기: 0331-46-5531~9 / 강원: 0361-51-4292~4 / 경북: 0391-1647-6031~3 / 충북: 0431-211-3851~4 / 충남: 042-285-6407~10 / 전북: 0652-245-9114~7 / 전남: 062-522-3811~2 / 대구: 053-954-3745~8 / 경북: 0571-858-8351~4 / 경남: 0551-88-0551~2 / 부산: 051-610-0510~4 / 제주: 064-63-2010~2 / 전기안전연구소: 0356-80-3114